

| 6월 Market Index | |
|--------------------|-------------------|
| 코스피 | 코스닥 |
| 2641.49 (-7.91) | 870.67 (+4.30) |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
| 3.325 (-0.024) | 1334.50 (0.00) |



D램 시장 ‘봄바람’... 삼성·SK, 슈퍼사이클 탑승 준비

전세계 D램매출 전분기비 30% ↑ AI 상용화로 고성능 D램 수요 급증
삼성, 서버 D램 출하량 60% 증가 하이닉스 매출 20.2% 성장 달성

D램 시장 안개가 걷혔다. 시장 회복이 본격화해서다. 미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분위기다. 메모리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공급이 많은 낸드플래시가 문제다.

◆ D램 한파 끝, 기술 경쟁 돌입

6일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세계 D램 매출은 174억60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29.6%나 증가했다. 메모리 업계는 지난해 4분기 D램 사업에서 흑자 회복을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전 사업으로도 흑자를 달성하며 실적 회복을 본격화했다.

D램 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다. 14나노급 DDR5를 중심으로 서버 D램 출하량이 60% 증가하는 등 매출이 79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점유율이 무려 45.5%로 전분기(38.9%) 대비 6.6% 포인트가 급증했다.

SK하이닉스는 출하량만 보면 증가율이 미미했지만 평균판매가격(ASP)을 19%까지 늘리며 매출 20.2% 성장을 달성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HBM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결과를 풀이된다.

다만 점유율은 오히려 2.5% 포인트 떨어진 31.8%에 머물렀다. 마이크론

역시 전분기보다 매출이 8.9% 늘었지만 점유율은 3.6% 포인트나 적은 19.2%였다.

트렌드포스는 1분기 비수기 영향으로 D램 출하량은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고정 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하며 수익성을 더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D램 수요가 다시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D램 가격은 이미 6개월 가량 상승세를 지속 중, 재고 수준도 구형을 제외하고는 정상 수준이거나 공급 부족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산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메모리 업계는 올 초만 해도 연말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장비 반입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면서 선단 공정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다시 확대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D램 수요 증가에 가장 큰 이유는 단연 AI 서버다. 트렌드포스 뿐 아니라 메모리 업계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서버용 D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AI가 상용화하면서 대형언어모델(LLM)을 실행하기 위한 AI 반도체와 함께 고성능 D램이 필요했던 것.

모바일 등 전방산업도 꿈틀대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4로 ‘온디바이스AI’ 시장을 개화한 이후 모바일은 물론 인텔 코어 울트라를 탑재한 PC 판매량이 급증했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서울 임대료 1위, 명동 아닌 ‘복창동’

6일 서울 중구 복창동 먹자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중구 ‘복창동’이 임대료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복창동’이었다. 복창동 1층 점포의 월 평균 통상임대료는 1㎡당 1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명동 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련기사 L7면>

/뉴시스

장바구니 물가 비상 신선과일값 폭등에 물가 3%대 재진입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째 둔화한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되면서 3%대로 올라섰다. 특히 사과와 귤 값이 전년동월대비 70% 넘게 급등하는 등 과일 가격 상승률이 3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1%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까지 치솟은 뒤 11월(3.3%)과 12월(3.2%), 1월(2.8%) 등 둔화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농산물물이 20.9%의 오름폭을 보이며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선과일(+41.2%) 가격이 폭등했다. 귤 78.1%, 사과 71.0%, 배 61.1%, 딸기 23.3% 등이다. 지난해 수해 등 여파로 작황이 예년에 비해 부진했고,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으로 이어졌다. 채소류도 토마토(56.3%)와 파(50.1%) 가격이 크게 뛰어서 12.2%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 3.1% ↑

귤 78%, 사과 71%, 배 61% 폭등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최상목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수준 600억 투입할 것”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사과와 배 등 주요 먹거리체감 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 신고가 행진... 비트코인, 거품우려 속 롤러코스터

美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영향 금 현물 1g 당 9만1250원 거래 비트코인 9700만원까지 치솟아

오는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상화폐 1위인 비트코인도 최고치를 터치했다. 금값은 더 상승할 것인 전망이 우세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가격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금선물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1.5% 오른 온스당 2126.30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섰다.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시스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하락할 것 같은 금 가격은 이날도 상승하면서 런던 시가 오후 1시 기준 0.37% 오른 2134.2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현물 금 가격도 최가를 기록했

다. 이날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현물의 1g당 가격은 9만1250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9만원 돌파에 성공했다. 2014년 3월 KRX 금시장이 개장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이틀 연속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치는 전년 기록한 8만9110원이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역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일 오전에 6만8000달러를 처음 넘어선 뒤 오후 6만921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전 사상 최고치는 지난 2021년 11월 10일 기록한 6만8982.20달러다.

국내 원화마켓에서도 97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종전 최고가를 경신했다. 금과 비트코인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만 실물자산인 금은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 수요가 많아진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에 속하지만 화폐자산의 대체재로 각광 받고 있어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값은 상승, 비트코인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원희룡, 양평고속도로를尹 처가 땅 근처로 바꿨다” 지적 /사진 뉴시스
▲ 권성동, 이재명에 토론회 제안... “국민 앞에서 심판받자”

▲ 국민의힘, 박성중·안병길 컷오프... 김영주·박민식 공천
▲ 조국 “한동훈 말 만나 11개 입시비리 무혐의 입장 물어보겠다”



▲ 이낙연, 오는 10일 광주서 결의대회... 출마 지역구 밝힐 듯 /사진 뉴시스
▲ 홍영표, “추가 탈당 기대 안 해... 현역의원 4명이 힘 합칠 것”

“의사들 집단행동, 책무 저버리는 일... 법 따라 엄중대응”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의료개혁, 한시도 더 미룰수 없어
‘비상진료’ 예비비 1285억 투입”
“2741개 초교서 늘봄학교 시작
국가돌봄체계 확립해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불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 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

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지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인력을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본격 시작된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준비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새 학기부터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국정과제”라며 “작년에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교권보호 조치가 실행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 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의대증원 취소’ 교수들 소송에 학생도 가세

의대 증원신청 후폭풍
교수협의회
“복지부장관, 권한 없는 무권한자
증원과정도 헌법상 원칙에 반해”
의대 증원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에 맞서 의대생들까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며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학생들까지 소송전에 합세할 것으로 전해지며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5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각 대학 의대생들도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국 각 대학별 의대 교수와 의대생도 증원 무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증원 결정은 권한 없는 주체가 행한 당연무효 사안이라는 게 이 변호사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복지부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장관이 행한 후속 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증원 과정이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4월까지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가처분 소송 기일이 겹칠 경우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가 4월까지 증원 배분을 마치면 각 대학은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반면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 정부의 증원 추진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하며 강경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특히, 앞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집행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경찰의 첫 소환 조사가 6일 진행되며 의정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현진 기자 hji@

>> 1면 ‘금, 신고가 행진’서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등 글로벌 불황 발생하면 금값 50% 급등 가능성”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에 34조달러(약 4경5424조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9월 15일에 33조달러를 넘어 지 110일 만에 1조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경제 위기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에 대해 수요가 더 몰린 것이라 분석이다. 경제 위기가 발생되면 달러화 가치 ㎍시 떨어지게 된다. 씨티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금값이 3000달러(약 401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 씨티 북미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현재 2016달러에 거래되는 금은 중앙은행이 구매를 급격히 늘리거나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글로벌 불황이 발생하면 약 50%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전날 사상최고치를 뚫었지만 곧바로 약세로 전환하면서 10% 넘게 하락한 6만3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다가오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지만 가격에 거품 있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는 이유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를 지나면 4만2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의 채굴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해시레이트가 반감기 직후 20% 하락할 것”이라며 “4만2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산업부,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투입

임대형 기숙사, 암모니아 배관망 등 오송·창원 등 산업단지 7곳서 추진
임대형 기숙사, 암모니아 배관망, 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업단지 내 청년 친화형 시설과 저탄소화·디지털화 기반시설 확충에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이하 펀드사업)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규모는 정부 예산 1868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1조717억원을 유치해 1조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신산업 기업의 투자 촉진, 문화·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펀드사업을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펀드사업 우선협상 사업은 오송산단, 창원산단, 울산미포산단, 두서농공·익산제2산단, 천안제3산단, 여수산단 등 지역 산단 사업이 6개, 서울디지털산단 1개로 지역 산단 중심이다.

(24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 우선협상 7개 사업) (단위: 억원) /자료=산업부

| 구분 | 사업명 | 정부재원 | 민간투자 | 총사업비 |
|------------|----------------|-------|--------|--------|
| 오송산단 | 데이터센터복합시설 개발사업 | 410 | 4,486 | 4,896 |
| 창원산단 | 업무복합시설 개발사업 | 400 | 1,925 | 2,325 |
| 울산미포산단 | 방류수재이용 개발사업 | 280 | 1,390 | 1,670 |
| 서울디지털산단 | 임대형기숙사 개발사업 | 303 | 1,140 | 1,443 |
| 두서농공익산제2산단 | 지붕형태양광 발전사업 | 150 | 850 | 1,000 |
| 천안제3산단 | 업무복합시설 개발사업 | 250 | 551 | 801 |
| 여수산단 | 암모니아배관망 구축사업 | 100 | 350 | 450 |
| 합계 | | 1,893 | 10,692 | 12,585 |

* 우선협상 과정에서 사업 및 사업별 투자금액·총사업비 규모는 일부 변경 가능

이들 산단에서는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 업무시설, 문화·체육·편

의시설이 함께 입주해 일과 여가활동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 건립사업 등이 추진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비건 확산에 대체식품 시장 ‘쑥쑥’... 2026년 2억弗 넘는다

친환경·동물복지 관심 증가
계란 대체식품 등 개발 성과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 생길 것”



신세계푸드 모델들이 ‘유아왓유잇 식물성 순대볶음’ 밀키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푸드

대체육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다양한 비건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다. 계란의 대체 식품이 개발되면서 냉동 김밥 등의 제품에서 콩으로 만든 대체 계란이 사용되는가 하면, 100% 식물성 원료로 개발한 식물성 순대도 등장했다.

건강한 식사를 원하고 육식 소비를 줄이는 비건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진 대안식품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16년 4760만달러(약 635억원) 수준이었던 국내 식물성 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 규모가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해 2026년에는 2억1600만달러(288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채식비건협회도 국내 채식 인구가 2008년 15만명에서 지난해 250만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는 300만명을 넘

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늘어나고 채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유통업체는 관련 상품 개발 및 출시를 통해 보다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푸드테크 기업 메타텍스처는 녹두, 대두, 단호박 등의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해 대체 계란을 구현했다. 동일한 단백질 함량을 가지면서 기존 계란에 함유된 콜레스테롤, 지

방 함량을 줄였고, 칼로리도 더 낮다. 기존 식품과 식감에서 오는 이질감이 낮아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재료가 콩이기 때문에 일반 계란보다 가격이 30~40% 저렴할뿐더러 비교적 가격을 안정감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메타텍스처의 식물성 계란은 현재 삶은 달걀을 비롯해 달걀 프라이, 지단 스크램블에그를 선보이고 있으며, 제빵용 달걀 분말 제품도 개발 중에 있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프리미엄 순대 전문점 순대실록과 협업해 ‘유아왓유잇(You are What you Eat) 식물성 순대볶음’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이번 협업은 더 나은 음식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음식 선택권을 제공하자는 양사의 뜻이 모여 진행된 것으로, 양사는 6개월간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유아왓유잇 식물성 순대볶음’은 신세계푸드가 100% 식물성 원료로 자체 개발한 식물성 순대와 순대실록의 170시간 숙성 비법 레시피를 접목한 냉동 밀키트다. ‘유아왓유잇 식물성 순대볶음’에 쓰인 식물성 순대는 신세계푸드가 대두단백, 당면, 양배추, 당근, 양파, 마늘 등 식물성 원료로 순대의 탱글한 식감을, 카카오 분말로 순대의 색상을 구현한 누드 순대다. 여기에 순대실록의 대표 메뉴인 순대곱창볶음의 양념과 채소를 한 번에 넣어 가정에서도 순대실록 매장에서 먹던 순대볶음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G마켓, SSG닷컴 등 온라인몰뿐 아니라 ‘유아왓유잇’ 코엑스점에서 판매한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유아왓유잇 식

물성 순대볶음’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각자의 기호와 신념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혁신적인 대안식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부가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식품업계의 식물성 제품 개발은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식물성 식품 브랜드 ‘플랜테이블’을 선보이고 비건 만두, 떡갈비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풀무원도 ‘지구식단’ 브랜드를 통해 대체육, 두부면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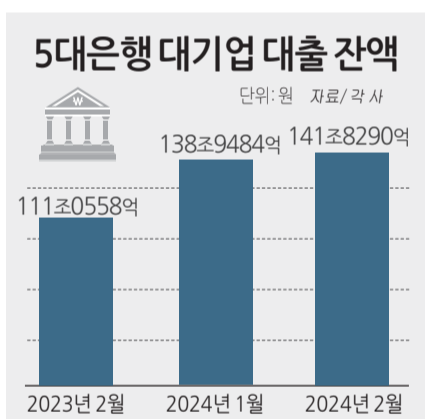
동원F&B 역시 식물성 대체식품 브랜드인 ‘마이플랜트’를 통해 비건 참치와 만두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물성 식품 시장이 초기 단계이지만, 소비자들의 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감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취식 경험이 늘면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대기업 대출 1년새 30조 ↑... 140조 돌파

5대은행 기업대출 잔액 776.7조
신용위험 커지며 대기업 영업 확대



국내 5대은행의 대기업대출이 1년새 30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1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지자 대기업 대출 영업을 확대한 영향이다. 경기불황에 은행권을 찾는 대기업도 늘고 있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776조7107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5657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전인 지난해 2월말과 비교하면 65조7871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잔액은 141조8090억원으로 전월 대비 2.1% (2조8606억원), 1년전과 비교해 27.8% (30조7532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34조9017억원으로 전월 대비 0.59% (3조7051억원), 1년전과 비교해 5.4% (35조339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이 일반적인 연간 성장률(5%대)을 기록한 것과 달리 대기업 대출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린 이유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평균 5.3%로 2012년 5.6%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과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감소로 채무 상환여력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12%로 1년전과 비교해 0.07%포인트(p)오른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같은 기간 0.16%p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당국은 지난 달 스트레스DSR을 도입한데 이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사에게 자체 관리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압박과 중소기업 부실이 더해지면서 은행들의 영입이 대기업대출에 쏠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많은 상황이라서 우량자산 위주의 기업대출을 확대해 수익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은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기업대출)최소 10% 가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WD-키옥시아 합병 변수... 출혈경쟁 우려도

>> 1면 ‘D램시장 봄바람...’서 계속

이에 따라 D램 기술 경쟁도 다시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가 AI 가속기 시장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진 엔비디아와 HBM 협력을 이어가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상황, 삼성전자도 뒤늦게나마 HBM 개발에 속도를 붙이며 주도권을 지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이어 마이크론에도 주도권을 잃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HBM 개발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뿐 경쟁사와 비교하면 개발 인력이나 규모에서 뒤처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SK하이닉스가 전략을 잘 세우고 대응하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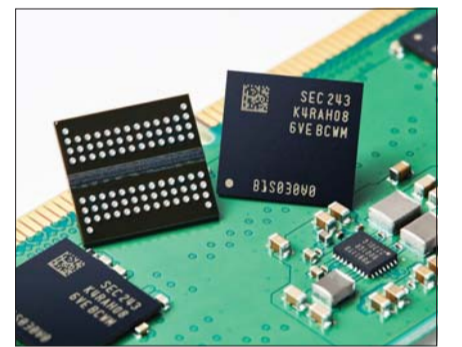
◆ 낸드 시장도 회복세

낸드플래시 시장도 훈풍이다.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14억 9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24.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매출 42억달러로 점유율 36.6%, 전분기보다도 5.2% 포인트 확대했다.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도 24억8000만달러로 점유율 21.6%를 기록, 전분기보다 1.4% 포인트 성장했다.

1분기도 긍정적이다. 비수기 속에서도 추가로 20% 증가할 전망, 서버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수요 급증이 이어질 것으로 트렌드포스는 예상했다. 공급망 재고 개선과 가격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가격 상승폭이 25%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단 경쟁 업체들과 차이는 크다. 양사 합산 점유율은 58.2%로 과반을 훌쩍 넘는다. 웨스턴디지털(WD)이 14.5%,



삼성전자 12나노급 D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3 D램 /SK하이닉스

키옥시아가 12.6%로 전분기 대비 각각 2%포인트씩 점유율을 뺏겼다.

WD와 키옥시아가 여전히 합병을 논의 중이라는 점은 변수다. 키옥시아가 자금난으로 다시 증산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사가 합병하면 30%에 가까운 점유율로 시장 장악력도 높아진다. 공급 과잉을 무릅쓰고 증산을 단행하기도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치킨게임 우려도 나온다. D램 시장이 2010년을 전후로 출혈 경쟁을 펼치면서 일본 엘피다가 파산하고 하이닉스도 파산 위기에 놓였던 것처럼, 양사가 합병후 증산에 나서면 심각한 실적 악화와 함께 업계 재편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보이지 않는 압박도 심해졌다. SK하이닉스가 베인캐피털을 통해 키옥시아 지분을 보유하고 합병을 반대하는 상황, 일본 등 매체에서는 한국 정부가 SK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외환보유액 4157.3억달러... 2개월 연속 감소

달러강세 영향... 한달새 3000만弗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7억3000만달러(약 555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전월(4157억6000만달러)보다 3000만달러 감소한 금액이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이유는 미국 달

러와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통화의 외화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달러화 지수는 전월 대비 0.6% 올랐다. 반면 미국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0.1% 줄었고, 파운드화와 호주달러화 환율도 각각 0.3%, 1.6% 감소했다. 엔화는 2.0% 떨어졌다.

자산별로 보면 국제화 회사채 등 유가증권(3695억2000만달러)이 8억30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

별인출권(SDR·150억7000만달러)이 1억 3000만달러 늘었다. 예치금(218억 1000만달러)은 9억7000만달러 줄었고, 금은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월말 기준 4158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193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1조2918억달러)과 스위스(8572억달러), 인도(6200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나유리 기자

박진, 개발·상권 숙원 해결 vs 김영호, 교통 등 지역현안 살피

〈興〉

〈野〉

22대 총선 격전지 서대문을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등 총 7개 동으로 구성된 서울 서대문구는 동쪽으로는 종로, 서쪽으로는 마포, 북쪽과 남쪽으로는 은평과 서대문갑 지역에 맞닿아 있다. 또 옆 동네 서대문갑에 비해 주거지가 많은 편이고, 대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심이 쏠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더불어민주당 등 보수, 진보 후보가 번갈아가며 당선되기도 했다. 그만큼 후보 경쟁력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번 4·10 총선에서 대결을 펼칠 이들은 4선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해당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고 있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대결을 펼칠 이들은 4선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해당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고 있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대결을 펼칠 이들은 4선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해당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고 있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다.

박진, 당 요청 받아 힘지서 '도전' 종로3선·강남을 탈환 등 경쟁력 ↑ '힘 있는 여당 후보' 내세워 승부수

서대문구는 민주당세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정두언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개인기로 내리 3선을 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당에선 후보가 경쟁력이 있으면 당색을 가리지 않고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종로에서 3선을 하고 강남을 민주당으로부터 탈환하는 등의 이력이 있어, 서울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평가받은 셈이다.

지난 5일 열린 박 의원의 서대문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대문갑 후보로 나설 이용호 의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진 의원은 자리에서 "서대문을 지역의 교통, 개발, 상권 등 해묵은 숙원을 해결하는 힘 있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대문구는 내부순환로 등으로 인해 일부 개발이 더딘 지역이 있다. 이때문에 박 의원 측은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서울시장-구청장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인 현재, 국회의원 역시 같은 당이어야 한다는 것이 선거 기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의원은 유진사가 지역 랜드마크 개발, 서부경전철의 신속한 추진 등 지

김영호, 모세혈관 유세 '3선 도전' 김승희 전 비서관 사직 이끌어 주목 경전철 건설 등 서울5대 공약 제시

역 개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다만 박 의원 측은 이 지역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만만하지 않은 상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김영호, 이번엔 3선 도전... '모세혈관' 유세

재선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서대문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후농(後農) 김상현 전 의원의 삼남이다. 김상현 전 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서대문구에 터를 잡고 있었다보니, 고령층은 그에 대한

추억과 애정이 쌓여 있다고 한다.

김영호 의원은 4번의 도전 끝에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그만큼 지역에서 상당 기간 터를 닦아왔다. 오랜 시간 지역민들과 얼굴을 맞댄 덕인지, 20대 총선에서는 9%p, 21대 총선에서는 23%p 가량의 차이로 뺏지 획득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의전비서관의 딸 학교 폭력을 밝혀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21대 마지막 국감에서 야당이 뚜렷한 '한 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김 의원의 폭로는 김 전 비서관의 사직을 이끌어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한 김 의원은 최근 '서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경전철 건설, 철도 지하화 등의 공약을 살펴보면 서대문을 지역의 현안과도 연관이 깊은 공약들이었다. 또 민주당이 낸 '근로소득자 체육시설 세제혜택' 공약 발표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서대문을 지역 내 헬스장을 찾기도 했다.

최근 김 의원은 자전거로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이른바 '모세혈관' 유세다. 남은 기간 바닷 민심을 더 단단하게 다지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의원 측은 "네거티브 없이 정책으로 박 의원과 좋은 승부를 보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첨생법 개정... '오가노이드' 활용 재생치료제 개발 본격화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 확대 전망 환자에 대한 접근성·치료기회 높아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재생치료제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는 개인의 세포를 통해 만들어내는 맞춤형 치료제로,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난치병 환자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세계 첫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이 국내에서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가 커졌다.

◆첨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상 확대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포·유전자치료제, 그리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료의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및 그 밖의 난치질환에 대해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단, 고위험 및 중위험으로 분류되는 세포유전자치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내용 및 목적의 선행연구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치료목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환자들이 해당 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시험 또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참여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치료계획심사를 허가 받은 경우에도 재생의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환자에 대한 접근성 및 치료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오가노이드는 성체줄기세포나 전분화능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인체 밖에서 만든 3차원 조직 모사체를 의미한다.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제작한 오가노이드는 인체 장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암을 포함하는 질병의 발생기전을 모사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체 치료제가 없

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첫 재생치료제 기대감

국내에서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에 대한 인체 임상 연구가 시작된 상태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세계 첫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 기대도 커졌다.

선발업체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해부터 장 재생치료제 '아롬(ATOM)-C'에 대한 인체 임상연구를 시작했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가 인체에 투여된 첫 사례다. 이제까지 베체트 장염 환자 2명에 아롬-C 투여가 이루어졌다. 베체트 장염에 이어 올해

는 방사선 직장염 환자에 대한 투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아롬-C는 지난해 첨생법에 의해 2건의 임상 연구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올해까지 10명의 환자에 아롬-C를 투여해 안전성 평가와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셀인셀즈 역시 지난해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피부재생치료제 'TRTP-101'에 대한 허가용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 TRTP-101은 인간 유래 줄기세포를 3차원 조직형상기술을 기반으로 오가노이드로 제작한 새로운 형태의 피부재생치료제다. 이를 피부가 합몰된 위축성 흉터에 이식하면 피부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다.

강스텝바이오텍은 인간 모낭을 그대로 재현한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기존 이식술을 대체하는 이식 기반 탈모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전, 3년간 누적적자 43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전망

흑자 전환에도 여전히 '부채 늪' 지난해 영업손실 4.6조 집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석유와 석탄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며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막대한 부채 규모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불붙고 있다.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연료 가격

하락에 힘입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 한 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조569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2021년 5조8465억원, 2022년 32조63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4조5691억원의 적자가 더해지며 3년간 누적적자는 43조원에 달한다. 다만 2022년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 가격 하락에 힘입어 1년 만에 영업손실 폭을 28조원가

량 줄였다.

지난해 매출액은 88조2051억원으로 전년(71조2579억원)보다 23.78%(16조9472억원) 늘었다. 영업비용은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감소 등으로 전년(103조9130억원)보다 10.72% 감소한 92조7742억원으로 기록됐다.

다만 흑자 전환 기조가 이어짐에도 누적 부채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기요

금을 3분기 연속 동결했다.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지난해 11월 대용량 고객 산업용 전기요금만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가격신호 기능을 회복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전 부채는 작년 말 기준 20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92조8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4조4200억원으로 전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년 대비 57% 늘었다.

4월 10일 예정된 총선 이후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차현정 기자 hyeon@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변화무쌍한 바다를 향해하는 것은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또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향해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미래의 미래에도
행복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SK도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하겠습니다.



이재명, 통합행보 강화

황희·이나영과 '尹 정권 심판' 다짐

서울 양천갑, 황희 의원 단수공천 황 "이 대표와 민주정부 4기 만들 것" 이 위원 "황 후보 도와 총선 압승" 이재명, 비명계 학살 의혹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양천갑에 단수공천을 받은 황희 민주당 의원(재선)을 지지 방문하고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양천갑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과, 민주당 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이나영 상임운영위원이 2인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특히 이 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후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친문재인계'인 황희 의원과 '친이재명계'인 이 위원의 한판승부가 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나영 위원이 당에서 허용하지 않은 예비홍보물을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하면서 황희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이 위원은 이를 승복하고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황희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황 의원과 이 대표와 손을 잡고 황 의원을 지지했다.

임 전 실장이 자신의 공천배제를 수용하고 이 대표를 적극 비판했던 설훈, 홍영표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의 공천 잡음이 수그러들자, 이 대표는 황 의원에 힘을 보태며 당에 통합 색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황희 의원은 선거사무소를 찾은 이재명 대표를 띄우며 방문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구갑 예비후보였던 이나영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술인회관에 마련된 황희 양천구갑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천구갑 예비후보였던 이나영 후보, 황희 더불어민주당 양천구갑 후보. /뉴시스

그는 "정치로 가는 길이 고단하고 가시밭길이다. 민주주의가 퇴행하면 할수록 그 길이 험난하다는 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잘 아시지 않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도자만이 걸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퇴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이 대표와 함께 민주정부 4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나영 위원은 "저는 이번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승복하며 4월10일 총선 압승을 위해서 진심 어리게 뺄 때까지 황 후보를 도울 것"이라며 "양천갑이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해 윤석열 정권 심판 선봉에 한번 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이 눈물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는 그를 위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집의 구성원"이라며 "잠시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로 뭉쳐서 승리로 나

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소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힘을 합쳐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안팎으로 지적받고 있는 '비명계 학살'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을 지휘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힘들고 잃는게 많다"며 "일부에서 자기 세력을 쌓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그나마 가까웠던 사람들도 절 원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리고 대표하는 정치집단으로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통신비 세액공제 등 부담경감 추진

군인 통신비 할인을 확대 등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가구당 통신비가 월 평균 13만원으로 집계돼 가계에 부담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부담 경감을 위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로, 민주당은 교통비처럼 현대인의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하겠다고 했다.

둘째, 현행 각 이동통신사에서 군인의 통신비를 20% 할인해주는 것을 병사에 한해 50%로 할인율을 확대 조정하겠다고 했다.

셋째, 매일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에 대해선 내 마음대로 선불하기 또는,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넷째, 공공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활용을 통해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 시키고, 가계통신비 중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장치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통신비 경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이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통신비 경감 공약 자체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개정 추진은 '고가 단말기 - 고가 요금제 - 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번호이동'만 유도하게 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조국혁신당 "12척 배로 학익진 망치선 되겠다"

지지율 조사서 15% 집계... 3위 기록 4050세대 움직임에 총선연합 가능성 이미 비례대표 위성정당 있어 비판도

진보진영에서 중도층과 부동층을 포용해 지역구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선명한 캠페인을 거침없이 전개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격 출범 전까지 물음표로 남아있던 조국혁신당은 점차 느낌표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보다 '좌클릭'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꾸준히 일정한 응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리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집계한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 조사(응답률은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혁신당은 15%로 집계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30%, 민주당의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21%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9%였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 대표와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4050세대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 조국혁신당에 표를 보태겠다는 움직임이 나오자, 양당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말을 꺼내며 총선연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대표는 전날(5일) 이재명 대표와의 국회 회동에서 '학익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이 망치선의 역할을 맡아 선두에서 서면, 뒤에 민주당이 뒤에 포진해 총선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조국혁신당의 1호 영입 인재이자 대변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 의석수가 12척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저희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 10석을 목표로 했다. 제가 오늘 목표를 조금 높여드리면 '12척의 배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다"며 "12척의 배를 주시면 말씀드렸듯이 학익진의 망치선이 돼서 쪽쪽 한번 뚫고 나가보겠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은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확실하게 선택하게 하고 비례대표에선 조국혁신당을 찍게 판을 깔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있음에도, 조국혁신당과 공식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이미 녹색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동의 목적 하나만으로 민주당은 진정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인해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켜, 윤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일등공신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조국의 강인가"라며 "저는 윤석열의 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 창밖 풍경을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尹 "CSIS, 한미동맹 구심점 돼주길 바라"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

햄리 회장 "美 조야 지지 확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지속적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정책 싱크탱크인 햄리 회장을 포함한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CSIS가 주요 싱크탱크 중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

하다"며 CSIS가 구심점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햄리 회장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미동맹이 도약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의 성공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가 확고하다"며 CSIS 차원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찬을 겸한 이날 접견에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매튜 포틴저 전 미국 국가안보부보좌관, 앨리스 후커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함께 했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다!다!우
기다!♡

하나뿐인 내 편,
임영웅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웅은 하나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KB라이프생명, 전산통합 마무리... 신사업 시너지 극대화



KB라이프타워 사옥 전경. /KB라이프생명

출범 1주년 물리·화학적 결합 완성
요양사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 주력

작년 순익 2562억... 전년비 89% ↑
경쟁사 신한라이프와 격차도 줄어

KB라이프생명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1월 출범 1주년을 맞이한 KB라이프생명은 연일 호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최근 전산통합 작업까지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도약을 모색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256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2022년(1358억원) 대비 88.7% 증가한 규모다.

472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신한라이프와의 격차도 줄어 들었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생명의 순이익은 지난 2022년 약 3136억원의 차이를 보였으나 2162억원으로 좁혀졌다.

특히 KB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전체 순익 1조3704억원 중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의 순익 합산만 1조911억원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보험 자회사 순익 1조원을 넘기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KB라이프생명의 순익기여도는 지난 2022년 3.27%에서 2023년 5.53%로 2.26%p(포인트) 올랐다.

또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역력비율(K-ICS)은 2022년 말 270.4%에서 37.6%p 상승한 308%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과 함께 건전성도 잘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푸르덴셜생명이 자랑했던 건전성도 유지가 잘 되면서 실적도 좋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KB라이프생명은 통합법인 출범 1년여 만에 전산통합 작업을 완성했다. 현재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고객용 모바일 앱도 전산통합과 함께 하나로 합쳐진다.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그동안 KB생명 전산과 푸르덴셜생명 전산을 따로 사용해 왔다. 이번 전산통합으로 그동안 진행해 온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통합작업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됐다.

전산통합은 인수합병을 거치는 금융사에게 중요한 작업이다. 고객 정보를 하나로 관리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영업 관점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산통합은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이 대표가 초대 대표이사로서 1년이 넘도록 두 회사 간의 통합작업을 완성했다는 데 의미를 더한다.

통합을 통해 KB라이프생명은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요양사업 등 새로운 사업 확장 시너지 효과와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 사이에 완전한 물리적 결합을 통해 내부 결속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의 30년 이상 누적된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보면 된다"며 "통상 전산통합은 2~3년 정도 소요되는 작업인데 출범 후 400일 남짓에 화학적 결합과 물리적 결합을 완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이은 호실적 경신과 이 대표의 숙원사업 달성으로 2024년 KB라이프생명은 본격적인 수확에 나선다. 통합작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성과 부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전산 통합 후 일부 테스트와 파일럿 기간들을 거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증의 과정들이 남아 있다"며 "실적과 함께 화학적·물리적 통합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회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신성장 동력도 찾았다"라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농협, 강호동 중앙회장 취임... 계열사 CEO 물갈이 예상

신임 회장 따라 새판짜기 가능성
은행장·손보·생명 대표 거취 관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취임을 앞두고 농협계열사 대표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신임 중앙회장이 취임하면 계열사 대표의 사직서를 받아 올해 역시 새판짜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7일 시작되고, 취임식은 11일 열린다.

강호동 당선인은 오는 21일 정기총회 이후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달 27일 이석희 현 회장이 중도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취임 일정이 앞당겨졌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비상

근 명예직이지만 전국 206만명의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다.

신임 회장의 취임으로 계열사 대표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농협금융은 지난 2012년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했지만 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기업의 의중이 작용한다.

과거부터 신임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하면 핵심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사직서를 받은 이유다.

실제 지난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회장은 취임 이후 이경섭 당시 농협은행장과 김용복 농협생명 대표, 이윤배 농협손보 대표 등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

4년 후인 2020년에는 농협금융 계열사 CEO 최초로 3연임에 성공했던 이대훈 농협은행장과, 흥재는 농협생명 대표, 최장수 농협손보 대표 등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할 때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서국동 NH농협손보 대표의 거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달 임기만료 후 회사를 떠난다고 밝힌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석준 회장을 제외한 모든 CEO들이 물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관료출신으로 현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고, 강 회장과 같은 영남권 인사라는 점에서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농협 계열사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은 계열사의 대표인사권은 물론 감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계열사는 농협중앙회장의 입김이 클 수 밖에 없으며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의 분리 정책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분리정책이 시행된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중앙회장이 바뀔 때마다 CEO가 사임하고 재신임 받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계열사들이 농협중앙회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지속되면 전문성을 강조한 독립적인 경영은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2024 드론쇼코리아에서 선보인 GS건설 버티포트 부스. /GS건설

GS건설, 드론쇼코리아 참가 UAM 상용화 쟁점 버티포트 디자인 공개

GS건설이 도심항공교통(UAM) 운용을 위한 지상 인프라인 UAM 서비스의 고객 접점인 버티포트(수직이착륙 비행장)의 콘셉트 디자인을 공개했다.

GS건설은 'UAM 퓨처팀' 컨소시엄 및 부산시와 함께 오는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드론쇼코리아(Drone Show Korea 2024)'에 참가해 버티포트 콘셉트 디자인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UAM 퓨처팀은 GS건설,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가 협력해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지난해 2월22일 국토교통부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1단계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하반기에 실증비행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GS건설은 UAM 운용을 위한 도심 내 버티포트 구축 방식에 따라 ▲리모델링형 ▲신축형 ▲1-layer 모듈러형 ▲2-layer 모듈러형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개념 설계안을 제시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UAM 사업에 적용 가능한 버티포트 콘셉트 모델을 제시하고 버티포트의 부지선정, 설계, 시공 및 운영을 아우르는 버티포트 통합솔루션 개발을 통해 UAM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연임 가능성... 매각 앞두고 안정에 무게

순이익 증대, 기업가치 제고 성과
MBK파트너스, 지배력 강화 도모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서는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세대교체 카드 대신 조 사장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조좌진 사장(사진)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지난 2020년 3월 취임 후 연임에 한 차례 성공했다.

조 사장의 최대 성과는 '순이익 증대'와 '기업가치 제고'다. 조 사장이 지휘봉을 잡은 지난 2020년 롯데카드의 당기순이익은 130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517억원)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2414억원, 2780억원을 거뒀



다. 3년 사이 롯데카드의 역량을 5배가량 키운 셈이다.

'로카(LOCA) 시리즈'의 흥행 역시 연임에 힘을 실는다. 신용카드 시장에서 롯데카드의 입지를 굳히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출시 1년 만에 100만장 이상을 발행했으며 최근에는 로카시리즈 간 혜택을 융합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 2월 7일 기준으로 카시리즈의 발급량은 400만장을 기록했다. 롯데카드 메인 상품 시리즈 중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다.

조 사장의 성과가치 제고 성과는 MBK파트너스의 주문과도 맞아떨어진다. MBK파트너스가 인수 4년차인 지난 2022년을 시작으로 롯데카드 매각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가 희망하는 롯데카드의 매각가는 3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교통카드 사업자인 로카모빌리티를 호주계 사모펀드 회사인 맥쿼리자산운용에 3961억원에 매각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2조5000억원 안팎을 요구할 것이라 해석이다.

조달비용 증가 등 카드사의 불안정한 영업환경 또한 연임설을 뒷받침한다. 선부른 대표 교체 대신 안정적인 성과를 거둔 조 대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에서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롯데카드의 당기순이익은 3657억원이다. 자회사 매각 등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1676억원으로 집계된다. 전년 동기 대비 37.8% 감소했다.

그러나 해당 시기 카드사의 영업환경이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앞서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과 최원석 비씨카드 사장 또한 잇따라 연임에 성공했다.

조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상표가치 제고에 주력할 전망이다. MBK파트너스가 희망하는 매각가를 두고 시장에서는 '지나친 가격'이란 비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유력 매각처로 부상한 바 있지만 매번 난항을 겪었다. 통상 사모펀드 기업이 엑시트 시기를 인수 4~5년차로 책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몸값을 올릴 확실한 실적이 필요한 것.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엄밀하게는 롯데카드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을 뿐 MBK파트너스의 매각의지는 여전히 '조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시장 내 지배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두 달 만에 年 수주목표 절반... 조선업계, 갑진년 '쾌속질주'

조선 빅3, 올해 100척 이상 수주 선박 가격 상승... 수익성 '청신호' "선별수주로 실적 개선 가속화"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4년 인도한 17만 4000입방미터(m³)급 LNG 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지난해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한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도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수주 목표 달성에 성공하며 실적 반등을 예고했다. 특히 수주한 일감이 2~3년 사이 현실화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선업계의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64척(해양설비 1기 포함) 77억9000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135억달러의 57.7%를 달성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4839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를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FSRU는 17만m³급으로, 길이 294m·너비 46m 규모를 갖췄다. 설비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7년 7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FSRU는 해

상에서 LNG를 기화시켜 육상에 공급할 수 있는 특수 선박으로, HD한국조선해양이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처음 수주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계약 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4척(해양설비 1기 포함) 77억9천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135억달러의 57.7%를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6척,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25척, 액화석유가스(LPG)·암모니아 운반선 21척, 에탄 운반선 1척,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탱커 3척, 자동차운반선(PCTC) 2척, FS

RU 1척, 해양 설비 1기를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까지 37억달러(4조939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목표 97억달러의 38%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6일 카타르에서 17만3000m³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5척을 35억달러(4조5716억원)에 수주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현재 연간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공시내용 등을 보면 지난달 말 중동지역 선사로부터 LNG운반선 12척에 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고, 1, 2월 오세아니아지역 선사로부터 초대형 액화프로판

가스(LPG)·암모니아 운반선 2척(3312억원), 원유운반선 2척(3420억원) 등을 수주했다.

여기에 올해들어 선박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점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초 신조선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6포인트(p, 11%) 상승한 181.27p를 기록했다. 이는 조선업계 역대 초호황기 시절인 지난 2008년(191.6p)에는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나, 선가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선종별로는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집중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이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한 2억6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초대형 유조선(VLCC)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오른 1억2800만달러를,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10.2% 뚝 2억3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K-조선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는 향후 5년간 9조원을 투자해 조선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조선산업 중장기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 위한 '조선산업 초격차 R&D 로드맵'도 올해 상반기 내 수립할 예정이다. 민관은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액화수소운반선을 2030년까지 개발하고,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주도하겠다는 구상도 공유했다.

특히 인력과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을 전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 및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사업'을 통해 매년 2000명의 조선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업계도 3사 공동으로 '해외조선인력협력센터'를 상반기 내 시범 운영, 해외 인력을 현지에서 교육한 후 국내로 들여오는 해외인력 도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난 2021년 상반기 수주된 물량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실적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최근 조선사들이 선별수주를 전면 내세운 만큼 조선업계에도 장기적으로 실적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S그룹, 제조업 디지털화... 미래사업 '새판'

AI·빅데이터 등 역량 강화 "디지털에 강한 LS로 탈바꿈"



LS그룹 청주 스마트 공장 전경. (원형사진) 구자은 회장.

/LS그룹

LS그룹이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에너지 기술 등을 접목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4' 현장에서 미래 사업 지속성을 높여겠다고 자신했다.

구 회장은 "AI와 로봇으로 무장한 미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을 고조시킨다며 '우리 LS는 어떠한 미래가 오더라도 AI, SW 등 다양한 협업과 기술 혁신으로 짧게는 10년, 그 이후의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업 체계를 갖추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LS그룹 각 계열사들은 구 회장 지원을 바탕으로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고객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며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다.

LS전선은 2024년부터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디지털 경쟁력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서 우선 강원도 동해시 해저케이블 공장에 MOM(제조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MOM은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 데이터를 디지털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프로젝트 관리 ▲공정 현황 파악 ▲생산 오더 생성 ▲실시간 작업 프로세스 점검 ▲원부재 재품질 이력 확인 ▲재고 이동·실사 등

을 수행한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부문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지중케이블과 통신케이블 등 다른 제품군에도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21년부터 전력·자동화 사업에 대한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IT역량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LS글로벌로부터 물적 분할한 LS ITC를 인수했다. LS ITC는 빅데이터, IoT, 스마트팩토리 등에 필요한 산업·IT 융합 서비스를 핵심 역량으로 보유한 IT 전문 기업으로 LSELECTRIC의 전력·자동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제품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의 청주사업장이 스마트 공장으로 바뀐 이후,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저압기기 라인 38개 품목의 1일 생산량은 기존 7500대 수준에서 2만 대로 확대되고 에너지 사용량 역시 60% 이상 절감됐으며 불량률도 글로벌 스마트 공장 수준인 6PPM(백만분율; Parts Per Million)으로 급감하면서 생산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LS MnM은 온산제련소의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인 'ODS(Onsan Digital Smelter)'를 2017년부터 추진 중이다. ODS는 단일공장 기준 생산능력 세계 2위인 온산제련소의 모든 생산 과정을 통신으로 연결하고 공정을 자동화하여,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고도화하는 디지털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LS엠트론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자율작업 트랙터 'LS스마트렉(SmarTrek)'과 원격관리 서비스 '아이트랙터(iTractor)'를 출시해 대한민국 농업 첨단화를 이끌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LS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자동화·빅데이터·AI 기술 등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Open Innovation 등 스마트 R&D 방식을 통해 디지털에 강한 LS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곽재선 회장 "‘토레스 EVX’로 해외 공략"

(KG모빌리티)

튀르키예 '토레스 EVX' 론칭 행사 "중동·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 총력"



EVX가 글로벌 시장 공략의 선봉장이 될 것"이라며 "토레스 EVX는 KGM이 유럽에 론칭하는 첫 전기차인 동시에 KGM이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모델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곽 회장은 "유럽은 KGM 수출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시장이자 2022년 대비 20% 이상 판매가 증가한 성장시장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토레스 EVX 판매가 시작되면 토레스 뒤를 이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KGM은 곽 회장이 해외영업 전방에서 현장 경영을 이끄는 만큼 올해 지난해 보다 50% 이상 성장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신차 론칭 확대와 기존 제품 라인업 강화는 물론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다변화와 그리스, 중동,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 및 KD 사업 등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출시

AI 기술로 맞춤 청정 솔루션 구현

삼성전자 공기청정기가 인공지능(AI)으로 혁신을 이어간다.

삼성전자는 6일 '비스포크 큐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라인업인 인피니트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 제품은 4웨이 서라운드 청정 기술

로 4면 360도 방향에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해 청정한 공기를 고르게 배출한다. 최대 11m까지 공기를 보낼 수 있으며 AI 기술로 맞춤 청정 솔루션도 구현했다. ▲실내외 공기질을 비교·학습해 공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면 미리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는 '맞춤청정 AI+' ▲실내 공기질이 좋아지면 알아서 바람 세기를 조절하거나 팬 작동을 멈춰 에너지를 100㎡ 모델 기준 최대 45% 절감하는 'AI 절약모드' 등이 적용됐다.

/김재용 기자

IT서비스 3대장, AI·클라우드·디지털 팩토리 신사업 '격돌'

〈삼성SDS·SK C&C·LG CNS〉

신기술 적용·발굴 내부정비 강화
SI 대신 클라우드 기업으로 바뀌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 극대화”

대기업 IT서비스 '3대장' 삼성SDS·SK C&C·LG CNS가 신기술·신사업 적용 및 발굴을 위해 내부 정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DT) 등을 주요 육성 과제로 재설정했다.

6일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용 IT(System Integration·SI) 시장이 2017년 287억 6700만 달러(38조 3694억원)에서 2027년 1269억 9000만 달러(169조 379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6.53%로 추정된다.

테크나비오 측은 “다양한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변환·모니터링·해석 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빅데이터 및 분석 통합 서비스의 신속한 구현은 SI 시장 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국내 SI 시장 또한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KRG가 추정한 2023년 관련 시장은 39조 1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성장했는데, 앞서 2020년 전년 대비 0.8% 성장했던 것과 비교할 때 괄목할 수준이다. KRG는 “팬데믹을 경험한 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됐고 특히 클라우드 구축이 DX를 위한 기반 인프라로 인식되며 업종을 망라하고 클라우드 구축 붐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 'SI' 대신 다른 이름으로

한국 SI기업 3대장 삼성SDS·SK C&C·LG CNS도 관련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SI' 명칭을 떼고 클라우드 기업 등으로 브랜



LG CNS D&A사업부 AI센터장 진요한 상무가 6대 생성형 AI 오픈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LG CNS

드 재포지셔닝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SDS는 AI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사업 발굴 및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CES2024 당시 삼성SDS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Hyperautomation(하이퍼오토메이션) 혁신’을 주제로 삼성SDS 생성형 AI서비스 FabriX와 Brity Copilot의 실제 시연을 진행하며 시장 진출 계획을 설명했다. FabriX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생성형 AI 결합을 가속화하는 플랫폼이며 Brity Copilot은 지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이다.

삼성SDS는 매출 실적에서 여러 분야의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기반의 CSP사업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MSP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며 매출 실적을 견인했다.

LG CNS는 DX전문기업으로 브랜드 리포지셔닝 후 엔터프라이즈 AI 전문 조직 'AI센터'를 신설했다.

LG CNS는 지난 1월 AI센터 출범식 'LG CNS AI DAY'를 열고 국내 생성형 AI 선도 기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함께 선포했다. AI센터를 필두로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I센터는 기업 고객과 함께 생성형 AI 사업을 집중 발굴하는 '생성형 AI 사업단', 미래형

고객센터(FCC, Future Contact Center)를 포함해 차별화된 AI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AI사업단', 언어·비전·데이터·AI엔지니어링 등 4대 AILAB으로 구성된 'AI연구소'를 한데 모았다.

진요한 LG CNS D&A사업부 AI센터장(상무)은 “LG CNS의 강점은 AI 전문조직과 데이터전문조직이 긴밀히 협업해 기업 고객을 위한 AI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AI센터를 통해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SK C&C는 디지털 컨설팅 자회사 애커튼파트너스와 함께 AI·클라우드·디지털 팩토리·ESG 등 4대 성장 사업과 디지털 컨설팅을 중심으로 대내외 전문가를 전진배치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디지털 팩토리 시장 대응을 위해 'Digital Factory 사업단'을 신설하고 제조 경쟁력 혁신 전문가인 김민혁 사업단장(전 액센츄어 차이나 하이테크 매니징 디렉터·파트너)을 영입했다.

생성형 AI 및 디지털 ESG 분야에서 신사업 발굴을 위해 사내 인터스트리 및 DX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반젤리스트 TF 그룹'도 신설했다. 국내외 산업·고객에 맞춘 생성형 AI DX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디지털 ESG 사업 확산을 직접 지원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대한전선, 3800만달러 초고압 전력망 수주

대한전선이 해외서 새로운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대한전선은 영국 북부 지역에 초고압 전력망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인프라 그룹 발포어 비티와 계약한 것, 전체 수주 규모는 3800만달러다.

MOU를 통해 2030년까지 2억8000만달러 이상 송배전망 프로젝트 입찰에 공동 참여하고 기술 공유와 제품 개발 협력도 약속했다.

이번 계약은 발포어 비티와 두번째

계약이다. 앞서 2700만달러 규모 400kV 초고압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계약한 바 있다. 양사는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유럽 뿐 아니라, 미국, 중동 등 인구 증가 및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성장에 따라 신규 전력망이 부족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영업력을 강화해 수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갤S24 울트라, 美 컨슈머리포트 1위

미국 소비자들도 세계 최초 AI폰 갤럭시 S24 울트라에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6일 미국 전문지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4 울트라가 최신 스마트폰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컨슈머리포트는 비영리단체 소비자 연맹이 발간하는 월간지로, 따로 광고를 받지 않아 현지 소비자들에 신뢰가 매우 높은 매체로 알려져 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총점 87점으로, 10개 평가 항목 중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성능과 내구성 등 하드웨어는 물론

편의성과 신뢰도 및 만족도까지 주관적인 평가에서도 '최고' 평가를 받았다.

경쟁 모델인 애플 아이폰 15 프로 맥스(86점)까지 제쳤다.

컨슈머리포트는 “더 밝은 디스플레이, 진보한 프로세서와 카메라, 향상된 배터리 사용시간 등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그 중 가장 매력적인 기능은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AI 편집' 등 '갤럭시 AI'”이라며 “갤럭시 AI는 실용적이며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용 기자



갤럭시 언팩 2024 체험존.

LS일렉-LG전자,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기술협력·지속적 정보 교류 등 협업 시너지 창출 방안·시장개척 계획 논의
얼라이언스로 전문성 확보 경쟁력 ↑

스마트팩토리 업계 리더 LS일렉트릭과 LG전자가 힘을 합친다.

LS일렉트릭과 LG전자 생산기술원은 5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스마트팩토리 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상호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MOU를 통해 ▲국/내외 스마트팩토리 시장 공동 프로모션 협력 ▲스마트팩토리 사업 공동 대응에 따른 기술협력 및 지속적인 정보 교류 ▲국내 및 해외 고객 대상 양사 보유 솔루션 및 역량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 등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폭넓은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LS일렉트릭과 LG전자는 스

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세계 등대 공장'에 선정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앞으로 기술과 시장, 파트너사를 공유하는 얼라이언스로 활동할 예정이다.

양사는 MOU를 체결하면서 얼라이언스 구축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팩토리 사업 시너지 창출 방안과 시장 개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사가 함께하는 얼라이언스로 전문성을 지속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세계등대공장에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주사업장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결합을 통해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 사물인터넷(IIoT) 기반의 자동 설비 모델 변경 시스템 ▲자율주행 가능한 사내 물류 로봇 ▲AI 기반 실시간 자동

용접 시스템 ▲머신러닝 기반의 소음 진동 검사 시스템 등 스마트공장 핵심 기술이 대거 적용돼 있다.

LG전자 세계등대공장인 창원 및 테네시 공장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기술이 결합된 '버추얼 팩토리'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라인·품질·설비 현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LS일렉트릭은 발전에서 송전, 그리고 수배전까지 아우르는 전력솔루션, 산업 설비의 핵심인 인버터와 PLC를 포함하는 산업자동화 솔루션,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ESS, 태양광 등 스마트에너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 전환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명실상부 국내 스마트팩토리 대표주자다. /김재용 기자 juk@

컴투스, 스타시드 명품 OST 조회수 20만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가 명품 OST 라인업으로 사전 인기몰이 중이다.

'스타시드'는 컴투스가 글로벌 판권을 확보하고 조이시티 자회사 모히또 게임즈가 개발 중인 AI 육성 어반 판타지 RPG다. 컴투스는 6일 최근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세계관 정보와 OST, 개발자 영상 등을 공개하며 예비 유저들과 적

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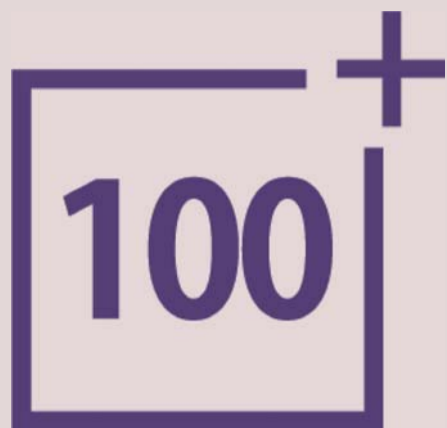
특히 SNS 채널 오픈 초기부터 꾸준히 공개해온 테마곡 리스트가 인기다. 공식 OST는 일본의 유명 음악 유닛 Bess4(블레스4) 멤버 AKINO(아키노)가 참여해 화제를 모았으며, 테마별 BGM을 플레이리스트 포맷으로 엮은 영상은 감성 충만한 곡 퀄리티로 인기를 얻으며 댓글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정버거가 커버한 OST 영상은 업로드 당일 10만 조회수를 돌파, 약 일주일 만에 20만 회에 육박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 정버거는 MZ세대 기반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이세계아이돌'의 멤버로, '스타시드' 첫 번째 공식 주제곡인 'Brave New World'의 커버에 참여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컴투스 신작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가 감성 충만 명품 BGM으로 화제. /컴투스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2024.03.20(수)

14:00~17:10

서울 명동은행회관2층국제회의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칼리지 수료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14:00 ~ 17:1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등 록:** <https://www.metroseoul.co.kr>(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프로그램

| 구분 | 시간 | 프로그램 |
|------|---------------|---|
| 참가등록 | 13:00~14:00 | 참가접수 및 등록 (13:30~14:00 VIP Tea 타임) |
| 축사 | 14:00~14:10 | 김주현 금융위원장 |
| 개회사 | 14:00~14:20 |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
| 기조강연 | 14:20 ~ 15:10 |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
| 강연1 | 15:10~15:50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 강연2 | 15:50~16:30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전망과 투자전략 |
| 강연3 | 16:30~17:10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 고령화시대, 재테크 전략 |
| 폐회 | 17:10 | |

外人 순매수 유입 지속... “코스피 2700선 돌파 가능성”

外人, 올해 들어 약 11兆 순매수
지난달부터 순매수액 규모 급등
반도체주·저PBR주 비중 높아
美 AI주 상승랠리에 투심 자극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의 기대의 못 미치면서 국내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도 3월 내 코스피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약 11조2928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은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했던 지난 1월 19일부터 본격화됐다.

이날 이후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2월부터는 순매수액 규모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액〉

| | |
|-----------------|------------|
| 2023년 12월 | 약 3조9842억원 |
| 2024년 1월 | 약 2조9516억원 |
| 2024년 2월 | 약 8조2412억원 |
| 2024년 3월(6일 기준) | 6234억원 |

/한국거래소

급격히 증가했다. 외국인들의 올해 1월 순매수액은 2조9516억원이었으며, 2월에는 그에 2배를 뛰어넘는 8조2412억 원을 기록하면서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외국인들이 1월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담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반도체주와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최근 한 달간 코스피시장에서 차지하는 저PBR주의 중요도도 상당했다. 외국인들은 해당 기간 동안 대표적인 저PBR주로 꼽히는 현대차를 1조7942억원 가량 순매수하며 가장 많

이 담았다. 이외에도 삼성물산(6309억원)과 기아(6228억원)를 사들이면서 밸류업 정책 수혜주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다. 또 다른 수혜 종목인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주들이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저PBR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주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도 자극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동일 기간 동안 SK하이닉스를 1조4894억원, 삼성전자를 1조3918억원씩 사들이면서 각각 현대차를 이어 순매수 상위 2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상 강제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의 아쉬움을 사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유입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발표됐던 26일 이후에도 외국인들은 2거래일을 제외하고 순매수세를 지속했다. 다만 전날이었던 5일 458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6일에도 3832억 원을 팔아 치우면서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다.

반면, 증권가에서는 3월 코스피지수가 최대 28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저PBR주의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순매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삼성증권은 2500~2800을 제시하면서 가장 높은 상단을 예상했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 2400~2750, 현대차증권 2560~2720, 한국투자증권 2550~2750, 키움증권 2520~2740 등이 예상 밴드를 제시했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모두 2700선은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넘어간 것은 2022년 4월이 마지막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PBR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방 경직성이 개선되면서 지수 하단 레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지수 저점이 높아질수록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잠재력도 높아지는 편이라는 점에서 3월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2700선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코스피는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로 펀더멘털과 무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3월부터는 다시 경제와 실적 등 기본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국과 미국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AI 관련주를 확보해야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코스피 빛투 급증... 신용잔고 9863억 증가

금투협 “신용거래잔고 18.5兆”
코스피서 두드러져... 10兆 근접
전망치 상향조정에 빛투 더 늘 것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빛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규모가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증시 추가 상승을 점치는 의견이 늘고 있어 ‘빛투(빛내서 투자)’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잔고는 18조5457억원으로 한 달 전(17조5594억원)에 비해 9863억원 늘어났다. 올 들어 신용거래잔고는 17조 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달 19일 이후 18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용거래잔고는 코스피에서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신용거래잔고는 9조9234억원으로 10조 원에 근접했다. 두 달 전인 지난 1월 3일(8조9097억원)에 비해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신용거래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

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빛투 증가 배경에는 올초 정부의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 발표에 더해 인공지능(AI) 테마 랠리가 지속되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포모(FOMO·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돼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증상)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실제로 연초 이후 신용거래잔고가 크게 늘어난 업종은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인 자동차(48%), 은행(42%), 보험(36%) 등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적·투기적 거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빛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AI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빛투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가 최근 코스피 지수 전망치

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빛투에 나서는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기업 의견 수렴, 6월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예정 등 상반기 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정책 모멘텀이 추가로 대기하고 있다”며 “3월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에선 3월 증시는 숨고르기 국면에 돌입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빛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한 달 정도 전망 하더라도 3월 인하 시작, 연내 7회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연내 3회 정도, 6월 인하 시작으로 많이 후퇴했고,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시장을 크게 흔들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연내 기준금리 인하 불가 주장도 등장하는 등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지난해 물적분할 상장사 19곳... 45.7% 감소

금감원 “투자자보호 노력 지속할 것”

지난해 물적분할에 나선 상장사들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전년 대비 16건(45.7%) 감소했다.

물적분할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母)가 분할된 신설회사(子)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방식이다. 일반주주는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매

수청구권 도입과 상장심사 강화 등의 제도가 시행 중이다.

회사들은 강화된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과 검토 내용, 주주보호방안 등의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했다. 다만 분할의 목적이나 효과 등을 기재하면서 구체성이 다소 미흡했고, 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 계획을 변경할 때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주주총회에서는 물적분할이 의결된 13개사가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고,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한 곳

은 주주의 대규모 청구권 행사로 분할을 철회하기도 했다.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대한 거래소 심사도 강화됐다. 한 곳은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 자회사 상장시 다양한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사들이 물적분할을 하면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양증권, 임재택 대표 재선임 안전 상정

재선임 확정 시 4연임

한양증권이 임재택 현 대표이사(사진)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상정했다. 재선임이 확정되면 임 대표는 4연임을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오는 21일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임재택 현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을 상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외에도 진중신 한양증권 비즈조직 총괄 등 2인의 사내이사 선임 및 박종민 산업은행 통합위원회 외부위원 1명의 사외이사 재선임건을 함께 올렸다.

임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양증권



대표의 자리를 지켜왔다. 오는 21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이후 사실상 4연임에 성공하게 된 셈이다.

임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원칙 중심 경영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학습조직 ▲디테일에 강한 증권사 등 2024년 세가지 경영 목표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조직의 사명과 장기 발전, 조직 구성원의 행복, 정의로움과 도덕성이 원칙”이라며 올해를 ‘자기자본 1조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막을 여는 원년’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콤, 복수거래 시장환경 대응 나서

‘SOR 솔루션’ 시연·설명회

코스콤이 코앞으로 다가온 복수거래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SOR(Smart Order Routing)솔루션’ 개발을 완료하고,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연 및 설명회에 나선다.

코스콤은 오는 7일 여의도 본사에서 국내 증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복수거래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한 ‘SOR솔루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솔루션을 활용해 통합시세 환경에서 투자자의 주문이 설정된 규칙에 따라 최선집행되는 과정을 시연할 계획이다.

SOR솔루션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는 ‘최선집행의 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2025년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이 예고됨에 따라 각 증권사는 한국거래소(KRX)와 ATS 중 더 유리한 조건의 거래 시장을 결정해주는 SOR솔루션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코스콤 SOR솔루션의 강점은 각 거래소의 시세를 직접 수신한다는 점이다. 솔루션에서 자체적으로 시세를 통합해 산출함으로써 가장 빠르게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유리한 거래 시장을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코스콤은 개별 투자자가 최선 집행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유연한 규칙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떤 규칙을 통해 주문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적 자료 제공 기능과, SOR 처리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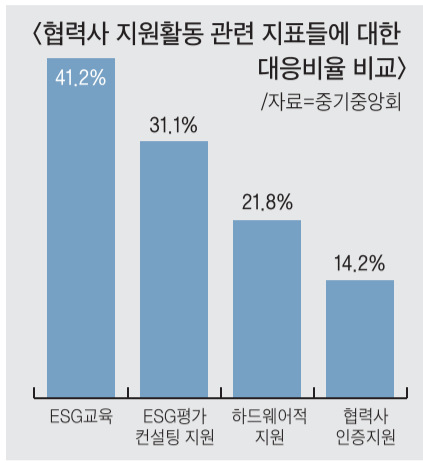
정기우 코스콤 금융사업본부 본부장은 “SOR솔루션이 손조롭게 개발 완료돼 증권사 관계자분들께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설명회 이후 개별 증권사와의 협력을 통해 순차적으로 솔루션을 설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시작될 ATS 연계 테스트도 완벽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대·중견기업 10곳 중 8곳 공급망 ESG 관리… 지원은 ‘저조’

중기중앙회, 공급망 실태조사
‘협력사 ESG 평가’ 75%로 최대
평가결과 페널티 적용 기업 19%

교육·평가컨설팅 등 ESG 지원
장비·인증 등 실질적 지원 저조



대기업, 중견기업 약 10곳 중 8곳이 공급망 ESG를 관리하고 중소기업 등 협력사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2곳은 평가 결과에 따라 협력사에 페널티도 부과하고 있었다. 특히 ESG에 대한 평가 결과가 거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 등의 지원은 저조했다. 공급망 ESG 관리를 갈수록 촘촘하게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내놓은 ‘2024년 대기업 공급망 관리 실태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번 공급망 관리실태 분석은 한국거래소 ESG포털에 지난해 9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자율공시한 상장대·중견기업 14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대기업, 오투기, 하이트진로, 쌍용C&E 등 중견기업, 그리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대상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협력사 행동규범을 토대로 대·중견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활동을 14개

세부활동으로 구분하고, 실시 여부 및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담고 7있다.

▲협력사 평가절차 보유 ▲협력사 평가항목 보유 ▲현장실사 기준 및 내용 보유 ▲평가결과 활용 ▲진단후 개선사항 제시 ▲향후 평가계획 ▲협력사 행동규범 보유 ▲협력사 ESG교육 ▲협력사 ESG 평가 지원 ▲인증획득 지원 ▲하드웨어적 지원 ▲페널티 보유 ▲구매시스템 반영 ▲기타사항이 세부활동이 두루 담겨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업의 75%가 자체적인 행동규범, 평가기준, 협력사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ESG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개 세부활동 지표 가운데 1개 이상의 지표에 해당하면 공급망 ESG 관리 활동을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세부활동 별로 살펴보면 협력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곳이 7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협력사 행동규범 보유 (67.6%) ▲협력사 평가항목 보유

(57.4%) ▲구매시스템에 반영 (52.0%) 순으로 높았다.

대다수 상장기업이 협력사 ESG 평가체계 구축 등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기초 인프라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74.4%), 전자부품(66.7%), 전기·통신장비 제조(63.1%), 건설업(60.0%), 통신업(59.0%) 순으로 공급망 ESG 관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협력사 평가결과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18.9%였다. 그러나 행동규범 상에 ‘ESG 평가 결과에 따른 페널티 부과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 비중은 43.2%에 달해 향후 ESG 평가 결과가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협력사 ESG 지원 활동은 ▲교육(41.2%) ▲평가 컨설팅(31.1%) ▲장비제공 등 하드웨어적 지원(21.6%) ▲인증취득 지원(14.2%) 순으

로 많아 교육이나 평가 컨설팅에 집중해 있는 실정이다.

장비 및 인증 등 실질적 지원은 비교적 저조한 상태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급망 ESG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대·중견 원청사의 멘토링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업종별로 공급망 ESG 관리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에 따라 맞춤형 정부지원을 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선진국을 주요 매출처로 삼고 있는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업종에서 협력사 탄소배출량을 측정, 관리하는 활동이 일부 관찰됐다.

이처럼 지난 10월부터 전환기간에 들어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글로벌 탄소배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에 대한 요구 경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 “플랫폼, 골목상권 침탈 중단을”

소공연, 독과점 규제 촉구 기자회견
“소상공인, 갑질·불공정행위 감내
쿠팡·배민 등 독과점에 포함해야”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대리운전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은 유통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한 플랫폼의 독과점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소공연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날이 심화되고 있다.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공연

소공연측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 조사 결과 소상공인 84.3%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76.6%는 규율

이 필요한 대상 범위를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 포함’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이 중개를 통해 취득한 독점 정보를 활용해 시장에서 플랫폼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플랫폼은 ‘자사우대’를 통한 골목상권 침탈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호 기자

중견기업계, 상속세 인하 등 기재부에 건의

32개 과제 담은 건의 제출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인하 등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6일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기재부에 제출한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사전증여 장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근로자 과표구간 상향 등 32개 과제가 담겨 있다.

중견연은 그러면서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선 매출액별로 차등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특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세제 지원 대상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그리고 연구개발(R&D)이나 가업상속공제 등은 5000억원 미만 중견

기업으로 각각 한정하고 있다.

중견연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면서 지속 성장의 근간인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군 안에서 기준을 다시 쪼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다”면서 “수많은 성장 저해 요인 중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1순위로 10곳 중 6곳이 ‘조세 부담’을 꼽은 만큼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선 시급히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는 또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기업 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반려동물 셀프미용기기 출시

‘펫 관리기’ 커트·드라이 등 기능

청호나이스가 반려동물용 셀프미용기기인 ‘펫 관리기’를 출시했다.

6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펫 관리기’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위생 모두를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커트, 드라이, 청소 등 셀프

관리 기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실내 미용 시 커트와 동시에 털을 흡입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 2.5l의 대용량 흡입 통을 갖춰 한번에 많은 털을 담을 수 있어 사용 중 비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커트 시 활용되는 에어클리퍼는 3·6·12·18·24

mm의 길이를 제공해 견종의 스타일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펫 관리기’는 6가지 타입의 멀티 헤드를 제공해 반려동물의 모질에 따라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고 털갈이 시즌에는 빗질과 동시에 흡입해 털들을 날리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이나 몸에 붙은 모래나 이물질 등을 흡입하는 전용 브러시가 있어 산책 후 위생관리에도 탁월하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N32 갤러리아 광고점’ 오픈

‘비건 인증’ 매트리스 컬렉션

시몬스의 비건 매트리스 컬렉션 ‘N32’가 가치소비 트렌드를 타고 쾌속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시몬스 침대의 N32는 국내 침대업계 최초로 전 제품에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매트리스 컬렉션으로, 지난 1월 전 제품에 비건 인증까지 받았다.

6일 시몬스에 따르면 최근 갤러리아 백화점 광고점 8층에 ‘N32 갤러리아 광고점’을 새로 오픈했다. N32가 갤러리아 백화점에 매장을 오픈한 것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갤러리아 타임월드점에 이어 두 번째다.



시몬스 N32 갤러리아 광고점 전경.

경기 남부 최대 상권인 수원에 자리한 갤러리아백화점 광고점은 국내 갤러리아 점포 중 최대 규모로, 각종 생활 편의시설과 가까이 가족 단위 고객부터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까지 전 세대가 모이는 곳이다. /김승호 기자

“공고엔 주5일, 계약하니 주6일”... 부당 채용 281건 적발

고용부,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발표
워크넷서 부당광고 예방체계 가동
민간 채용포털 연 2회 집중 모니터링

A 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는 월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으나, 면접이나 채용 시엔 월300만원·주6일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했다.

B 협동조합은 채용공고에서 지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혼인유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처럼 구인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거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법위반 채용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광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1.4%) 늘었다. 취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석 달 만이다. 아울러 지난달(28만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뉴시스

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 전가 등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공고를 등록할 때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구인신청 시 부당한 채용공고 등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 필터링한다.

아울러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또 민간 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라면 공장 증설 현장서 ‘수출증대’ 논의

케이-푸드 플러스 확대 협업 강화

정부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등 식품분야 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 생산공장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 밀양시 등 지자체 관계자 등은 6일 삼양식품 ‘밀양2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국내 농식품분야 수출 1위 기업으로, 주력상품인 라면을 전량 한국에서 생산해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공장이 완공(내년 상반기 예정)되면 연간 5억6000만 봉지 분량의 라면이 추가로 생산되며, 연간 최대 생산량은 현재 18억 개에서 23억6000만 개로 늘어난다. 삼양식품은 기존 1공장을 통해 중국시장 기반 수출을 확대하고, 신설되는 2공장은 미주시장을 겨냥한 전초기지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밀양2공장 설립과 수출 전용 소스라인 증설 등으로 지역경제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삼양식품과 같은 주요 수출기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며 “2024년도 K-Food+ 수출 목표 135억 달러(농식품 100억 달러, 전후방산업 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20일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Food+(농식품 및 연관산업)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전략 발표를 계기로 농식품부는 K-Food+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가동해 현장 애로를 해소해 수출·투자를 독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실적은 1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라면(35.2%)과 음료(27.9%), 쌀가공식품(31.7%), 인삼(30.7%), 김치(13.2%) 등에서 크게 늘어났다. 수출대상국별로는 유럽연합 24.2%, 미국 15.9%, 아세안 7.9%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대출지원 개시

산업부, 친환경차 보급 이차보전사업
연구개발 등 업체당 자금 100억 한도

정부가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4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친환경차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을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이자 최대 2%포인트를 최대 8년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총 2700억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 취급 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을 새로 추가해 기업의 은행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사업개시 이후

작년까지 84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분야별로 시설자금 분야 57곳, 연구개발자금지원 26곳, 인수합병 자금지원 1곳 순이다.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은 3월 7일~27일까지로, 은행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첫 전수조사 실시

권익위, 전국 광역지단체·교육청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부패 사건을 별도 분석한다.

권익위는 4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도 동일하게 △청렴도 △정직도 △부패사태 평가(감점) 3개 영역 평가결과를 종합해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 청렴도 개선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

점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영역인 ‘부패사태 평가’와 별도로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 확정, 올해 12월 경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뉴시스

IoT 기반 농기계 사고 예방 기술 상용화

농진청, 전국 14개 지역 단말기 설치

농촌진흥청이 6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지난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IoT를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2021~2023년 3년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한 LED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

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업기계 운행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14개 지역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했다”며 “그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으며 60km/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었다”고 밝혔다. 또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세종=김연세 기자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주최: metr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 프로그램

| 구분 | 시간 | 프로그램 |
|---------|-------------|--|
| 참가등록 | 12:30~13:30 | 사전등록 (13:00~13:30VP Tea타임) |
| 개회 및 축사 | 13:30~14:00 |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
| 섹션1 | 14:00~15:40 |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Prof 강연2: Ryuichi Okamoto Prof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 브레이크타임 | 15:40~15:55 |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
| 섹션2 | 15:55~17:00 |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
| 폐회 | 17:00 | |

부산 워크이션 거점센터, 獨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혀 9개 부문, 72개국서 1.1만개 출품 인구 감소지역 내 조성, 높은 평가

부산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부산 워크이션 거점센터'가 인테리어 부문(사무 공간) 본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하노버의 독립적인 디자인 기관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상이다.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컨셉트 ▲인테리어 ▲건축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총 9개 부문, 72개국에서 접수된 약 1만 1000개의 출품작이 경쟁을



별였으며,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132명의 심사위원단을 통해 수상작이 선정됐다.

부산 워크이션 거점센터는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된 부산형 워크이션 활성화 사업의 핵심 업무 공간으로 시원한 전망과 함께 ▲독립된 업무 공간 ▲폰부스 ▲회의실 ▲이벤트 라운지 ▲미니바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차별화된 업무 공간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시가 사업 추진에 앞서 구글, 네이버 등 워크이션 경험 글로벌 대기업에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2월 개소 이후 시스템 정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부산형 워크이션' 사업은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1년

도 안 돼 이용객 1200여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이용객 대다수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 소속으로 20~30대 ICT 분야가 가장 많고 부산지사 설립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어워드를 주관하는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 관계자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효율적인 업무 공간 배치로 일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됐다"며 "인구 소멸의 대안으로 인구 감소지역 내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한 거점센터를 조성·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국제 디자인 수상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워크이션 도시 부산의 브랜딩과 전략적인 글로벌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증가하는 워크이션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외 핵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까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0억원을 포함 24억원을 투입해 전문가 컨팅을 거친 후 2027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창녕군

더본코리아와 농촌경제 살리기

창녕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더본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통한 지역 대표 음식 개발과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촌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포늪과 우포늪생태체험장, 창녕생태근충원, 우포생태촌유스호스텔 등 우포늪 관광 지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 음식점 등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군의 역점 사업으로 관내 이방면 일원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안동시

안동시티투어버스 운행 개시

'안동시티투어버스'가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안동시티투어버스는 문화해설사가 동승해, 수준 높은 해설과 관광지별 인생사진 포인트를 알려주는 등 관광객이 안동 여행을 특별한 여행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동역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버스는 출발·도착 시각을 KTX 운행 시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KTX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이벤트도 준비한다.

투어상품으로는 주·야간 도심테마상품 및 권역별 테마상품이 있다.

/안동(경북)=정영우 기자 ycyw57@

울릉군

'생활민원 신속처리반' 운영

울릉군이 오는 18일부터 일반주민들을 비롯한 취약계층,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 가구 등에 생활 불편사항을 신청 받고, 즉시 방문해 현장에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신속처리반'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남한권 울릉군수의 의지를 담아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 3월 자체 행정과 민원봉사팀에 생활민원 신속처리반 업무 신설 및 인력 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생활민원 신속처리반은 소규모 집수리 등의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을 직접 찾아가 처리하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울릉(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해남군, 공모사업으로 6912억 확보

(5년간)

3년 연속 1500억 이상 사업 선정 2017년비 6.5배 이상 늘어나 올해도 19건, 655억 확보 '순항'

해남군이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각급 기관 공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돋보이는 공모사업 추진 성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2021년 1884억원 달성이후 지난해까지 3년연속 150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공모사업으로만 603건, 691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43건, 200억원에 불과하던 공모사업은 지난해 127건, 1501억원까지 증가하면서 6.5배 이상 늘어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암군, '드론 레저 국제경기' 개최

올 10월 영암F1자동차경주장서 열려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의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의 '드론 레저 국제경기 개최' 분야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영암군은 올해 10월 12~13일 '2024 국제 DF-1 드론 레이싱대회'를 영암F1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한다.

드론 레이싱은 초고속 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펼쳐지는 경주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정해진 코스에 따라 드론을 조종해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참가자가 승리하는 스포츠로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FPV(First Person View) 고글을 쓰고 드론을 조종하며 존각을 다룬다.



영암F1자동차경주장. /영암군

이 대회는 국제자동차경주연맹(FIA)이 1등급으로 판정한 국내 유일의 영암F1경주장에서 색다른 레이싱을 볼 수 있다는 점, F1경주장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 등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여수시, 탄소중립기술 상용화 거점 도약

국내 유일 실증센터 개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래혁신지구에 국내 유일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이하 실증센터)를 개소하고 탄소중립기술 상용화의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

'한국화학연구원 실증센터'는 1차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의 촉매 제조 테스트베드 구축, 2차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저탄소 고부가 산업공정에 필요한 촉매개발 ▲CCU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시제품 제작지원 ▲탄소중립 대응기술개발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1차 사업으로 구축된 이번 실증센터는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

모사업에 선정,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83억 원이 투입돼 건축면적 2501㎡에 총 2개동 규모로 조성됐다.

석유화학 공정·소재의 실증을 위한 시제품 생산, 시험, 분석 등 23종의 촉매 제조 핵심 장비를 갖추고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증 및 기술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현재 연구원 등 1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오는 2030년까지 40명까지 인력을 확충할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 기초 유분 제조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나아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저탄소·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부산테크노파크, AI 최신 강연 등 열어

'글로벌 AI 부트캠프 인 부산' 개최

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8일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에서 '글로벌 AI 부트캠프 인 부산(Global AI Boot Camp in BU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부트캠프는 2018년부터 매년 전 세계를 돌며 인공지능(AI) 분야 최신 강연과 워크숍, 실습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3월 한 달간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 세계 70개 이상 도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를 달구고 있는 챗GPT, 달리(DALL-E), 코파일럿(Copilot)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

능 기술들과 Github Copilot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 애저 오픈AI(Azure OpenAI) 등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마이크로소프트 MVP(Most Valuable Professional)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참가 등록은 2024 글로벌 AI 부트캠프 인 부산 참가 등록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의 주요 사업들도 소개한다. BUSAN DATA WEEK 2024, DX부트캠프, DX포럼, 데이터 글로벌 해커톤, 코드포부산, 지산학 연 협력 교과 개설 및 PBL 지원 등 지역 데이터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R&D역량·노하우·기술력 집약 한국인 맞춤형 골프화 만들어”

Q 르포 | 데상트 DISC 골프화 2종 쇼케이스장 가보니

아시아 최대규모 신발 R&D센터
기술 개발·분석·테스트 한곳서
레이스업 디자인 ‘프로클래식’
카본플레이트 삽입 ‘골프콘도르’
“카본, 안정감·탄성 등 효과 커
다양한 퍼포먼스 낼 수 있어”



후루야 다이스케(FURUYA DAISUKE) DISC 센터장. /최빛나 기자



2023년 카본플레이트를 미드솔 중간에 삽입한 데상트골프콘도르. /최빛나 기자

“2021년, 한국인 발에 맞춘 골프화란 콘셉트로 ‘R90’을 처음 출시했고, 2023년 카본플레이트를 미드솔 중간에 삽입한 데상트골프콘도르, 올해는 클래식 구두 디자인 ‘프로클래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모든 골프화에는 한국인 족형에 맞춰 설계됐다. 접지력, 착화감, 안정성을 고루 갖춘 제품이다.”

후루야다이스케 데상트DISC 센터장의 말이다.

데상트골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QED골프아카데미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골프화’라는 주제로 최근 출시한 ‘프로클래식’을 비롯한 2종의 골프화를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데상트골프화를 대표하는 R90, 데상트골프콘도르, 프로클래식 등 3대 골프화가 연구소 콘셉트로 전시돼 있었다.

이를 통해 개발 과정과, DISC의 R&D역량과 노하우, 기술력이 반영된 제품임을 강조했다.

DISC는 데상트신발연구소의 영문 약자로, 골프화가 브랜드의 주력 비즈니스 부문으로 성장하기까지 중추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DISC에서는 접지력, 착화감, 안정성 등 골프화가 갖춰야 할 모든 기술 개발, 분석, 테스트가 모두 한 곳에서 이뤄진다.

특히 2월 초 출시한 ‘프로클래식’은 데상트골프에서 최초로 선보인 끈 묶는 형태의 레이스업 디자인이다. 클래식한 구두 스타일로 깔끔한 앞코, 윙팁 편칭, 스티치 디테일로 기존에 스포티함, 기능성을 강조한 R90, 데상트골프콘도르와 차별화했다.

데상트골프가 현재 보유한 골프화 모델 수는 총 11개에 이르며, 출시 이후 매년 평균 20종씩 신제품을 출시 중이다. 실제 데상트골프는 최근 3~4년간 한국 골프화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데상트골프 매출에서 골프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첫 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2월 현재 약 30%에 이른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벌써 18% 더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골프화의 성장은 DISC의 개발 투자를 비롯해 데상트골프가 KPGA, KLPGA, LPGA 등에서 활약 중인 투어 선수의 활발한 후원 및 대회에서 신은 이후의 피드백 등을 다시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도 한 몫 했다.

맹태수 데상트골프 브랜드매니저는 “데상트골프화의 가장 큰 특징인 카본플레이트 기술은 실제 국내 스포츠화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기술력이다. 카본이라는 소재 자체가 주는 효과가 크다. 카본을 통해 안정감, 착화감, 탄성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DISC는 데상트코리아가 개개인 발 모양에 최적화된 퍼포먼스 슈즈 개발의 비전을 품고 2018년 부산에 설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발 R&D센터다. 지금까지 약 2200여명의 한국인 족형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원천기술과 라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골프화에 접목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렌틸콩퀴노아 곤약밥(왼쪽부터), 병아리콩퀴노아 곤약밥, 서리태 흑미밥. /CJ제일제당

“잡곡밥 등 2분만에 ‘똑딱’ 건강 식습관 유지하세요”

CJ제일제당, 햇반 신제품 3종 렌틸콩퀴노아 곤약밥 등 선보여

CJ제일제당이 햇반 잡곡밥, 곤약밥 제품군을 확대하며 ‘햇반 집밥화’에 박차를 가한다.

CJ제일제당은 ‘서리태 흑미밥’, ‘렌틸콩퀴노아 곤약밥’, ‘병아리콩퀴노아 곤약밥’ 등 햇반 신제품 3종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서리태 흑미밥’은 엄선한 국산 서리태를 쪄가지 않고 통째로 넣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통으로 원물을 넣은 즉석밥 구현이 어려웠으나, CJ제일제당만의 최적 열처리와 수분제어 기술로 서리태를 통째로 익히는데 성공해 고소한 맛과 식감을 살렸다. 또한 제품 한 개당 달걀 흰자 3.3개 분량의 식물성 단백질이 담겨 있어 전자레인지로 2분만 조리하면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

곤약밥 2종도 선보인다. ‘렌틸콩퀴

노아 곤약밥’·‘병아리콩퀴노아 곤약밥’은 곤약쌀과 함께 병아리콩, 렌틸콩, 레드퀴노아, 현미, 귀리 등 다양한 통곡물을 최적 비율로 배합해 맛과 영양을 살렸다. ‘렌틸콩퀴노아 곤약밥’은 160kcal와 식이섬유 4g을 함유하고 있으며, ‘병아리콩퀴노아 곤약밥’은 칼로리는 170kcal, 식이섬유는 6g을 함유하고 있는 고식이섬유 제품이다. 한 공기를 다 먹으면 바나나 1.8개 이상의 식이섬유 섭취가 가능해 식단조절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

CJ제일제당은 잡곡으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는 소비자를 겨냥해 즉석밥 시장에서 웰니스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향후 ‘햇반의 집밥화’를 목표로 선호도가 높으나 기술적 한계로 상품화가 어려웠던 제품들을 선보이며 성장세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대구신세계, 드론 브랜드 DJI 팝업 오픈

지역 최초... 매빅 시리즈 등 준비

대구 신세계가 드론·액션카메라 전문 브랜드인 DJI의 팝업스토어를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DJI는 드론과 액션 카메라, 짐벌(카메라를 고정시켜 흔들림을 줄여주는 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브랜드다. 대표 상품으로 ‘매빅 시리즈(드론)’, ‘오즈모 시리즈(액션캠 및 짐벌)’ 등이 있다.

대구신세계 5층에서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DJI의 대표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을 한 데 모아 소개한다. 고객들이 드론을 직접 조종해볼 수 있도록 별도 키오스크도 마련했다.

그동안 DJI의 드론과 액션캠을 체험하기 위해 수도권 혹은 대전, 부산까지 가야 했던 대구·경북 고객들이 더욱 가까워져 ‘오즈모 포켓’, ‘매빅 프로’ 등 DJI의 인기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팝업에서는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뽀귀’ 사태까지 빚고 있는 ‘오즈모 포켓 3콤보’가 매주 입고될 예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발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영상으로 여행이나 취미, 일상을 기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브이로그(Vlog·일상 생활을 찍은 동영상)’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촬영용 드론 및 액션캠 시장은 커지는 추세다. DJ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 /최빛나 기자

홈플러스, 당당 두마리엿날통닭 ‘9990원’

13일까지 홈플러스 2주차 행사

홈플러스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2주차 행사에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9990원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당당 두마리엿날통닭(9990원), 두칸반반 딸기(800g, 9990원)가 대표적이다. 특히 딸기는 지난해 완판 행진에 힘입어 이번 주 행사 물량을 2배 확대했다. 또, 10대 카드 결제 시 ▲12브릭스 성주참외(3~5입) ▲12브릭스 블랙라벨 고풍도 오렌지(1.8kg) ▲12브릭스 맛난이 부사사과(4~7입)를 모두 9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을 엄선해 특가에 판매하는 ‘초저가! 홈플러스딜’ 2주차 행사도 전개한다. 7~13일 피죤 액츄얼리 젤 리필(2L)을 75% 할인한 2900원에 판매하고, 7~9일 풀무원/CJ 유기농 콩나물(270g)을 890원, ‘삼립 상쾌한 아침 유식빵(300g)’은 1000원에 판다.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육류는 마트 방문 시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



모델이 6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창립 27주년 단독 슈퍼세일 ‘홈플러스’ 2주차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첫 주 삼겹살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7~9일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국내산 브랜드 삼겹살/목심’ 50% 할인, 8~10일 ‘농협안심한우 전품목’ 10대 카드 결제 시 50% 할인, 7~13일 ‘호주 청정우 전품목’을 10대 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한다. /최빛나 기자

G마켓·옥션 이사·혼수시즌 맞아 새봄새출발 빅페스타

G마켓과 옥션은 오는 18일까지 13일간 ‘새봄새출발 빅페스타’를 진행한다. 이사, 혼수 시즌을 맞아 리빙·가구, 생활·주방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가에 판매하고, 무제한 쿠폰 등 풍성한 혜택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인기 홈리빙 브랜드 14곳이 참여, 단독 혜택을 선보인다. 듀오백·레이디가구·리바트·리벤스·메종오브제·모던하우스·아망떼·아이르·아이리스크리아·지누스·테리퍼머지·한샘·해피콜·3M 등이 있다.

각 브랜드 전문관을 통해 스테디셀러를 선보이고, 최대 15% 브랜드 전용 중복쿠폰을 제공한다.

홈리빙 ‘최저가’ 도전 상품도 선보인다. 매일 특가 상품군을 정해 9개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6일은 ‘수납정리용품’ 싸게 파는 날이다.

/최빛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금연시도율 상승... “성공하려면 ‘습관적 행동’ 극복해야”

최근 4년간 금연시도율 43.5% HR메디칼, ‘엔드퍼프’ 출시 세계 최초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인체적용시험서 문제없음 확인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금연시도율은 담배 종류와 상관없이 현재 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년간 국내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이 평균 43.5%에 이르고 있다고 집계했다. 이러한 추세는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국가통계포털 2018년도 자료 기준으로 볼 때, 금연 실패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 압박이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피우던 습관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33.7%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건강기업 HR메디칼은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엔드퍼프’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엔드퍼프’는 니코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습관을 개선하는 제품이다.

HR메디칼 관계자는 “금연 초기 니



HR메디칼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엔드퍼프(End-puff)’를 공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코틴 대체요법 등과 병행해 엔드퍼프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니코틴 의존도를 줄이면서 금연 실패 주요 원인인 ‘습관적 행동’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금연 계획 수립이 가능해 금연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HR메디칼은 ‘엔드퍼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및 세계 최초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

HR메디칼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연구개발과 독성 및 임상시험

을 거쳐 9년 만인 2023년 식약처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연보조제인 의약품과 ‘흡연욕구저해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HR메디칼 관계자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엔드퍼프를 제외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완료하거나 승인받은 제품은 없다”며 “현재 출시 중인 흡연욕구저해제의 경우에도 인체적용시험을 거친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HR메디칼에 따르면 엔드퍼프는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국제규격인

증기관을 통해 13주 반복흡입독성시험과 소핵시험을 완료했다. 그 결과 ▲혈액학적 및 혈액생화학 검사 ▲안과학적 검사 ▲장기중량 측정 ▲병리조직학적 검사 ▲소핵 유발 여부 등에서 모두 이상이 없음을 입증했다.

또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6주 동안 진행한 인체적용시험에서는 폐활량 평균값 증가, 혈액검사 상 안전성에 문제없음 등이 확인됐다. 특히 6주차에 금단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출시된 ‘엔드퍼프’는 배터리가 탑재된 기기와 카트리지(파드), 멘톨향 용액 30ml 등으로 구성됐다. 흡연습관개선이 필요할 때 담배 대용으로 사용한다. 1일 권장 사용량은 약 1.5ml로 120~130회 흡입이다. 1일 권장 사용량에 따라 1병당 20일 정도 사용 가능하다.

HR메디칼은 향후 엔드퍼프를 활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보건소와의 협업을 추진해 공중 보건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HR메디칼은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HR메디칼에 따르면 전 세계 금연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40억 달러로 추정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9.2%로 오는 2032년에는 5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슬로우에이징’ 주제 강연

아모레퍼시픽의 스킨케어 브랜드 아이오페가 슬로우에이징 관련 전문 지식을 고객들과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아이오페는 6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아이오페 클리니컬 랩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날 브랜드 자문을 맡고 있는 정희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와 안지수 서울 모텔로 피부과 원장이 ‘가속노화의 시대에 느리게 나이 드는 법(슬로우에이징)’을 주제로 강연했다. 1부에서 정희원 교수가 슬로우에이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2부에서는 안지수 원장이 흡연 예방 방법을 설명했다.

아이오페는 지난 1996년부터 ‘아이오페 클리니컬 랩’을 통해 국내 여성의 피부에 대해 연구해 왔다. 현재도 전문가의 연구와 기술을 집약한 고효능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페인엔젤 센’ 크기 축소 환자 복용 편의성 개선

JW중외제약이 제품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소염진통제 ‘페인엔젤 센’을 재단장해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페인엔젤 센’의 제형 크기가 기존 가로 19.7mm, 세로 8.7mm에서 가로 14.7mm, 세로 9.2mm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것이 JW중외제약 측의 설명이다.

‘페인엔젤 센’은 해열, 진통, 소염 등의 효과를 갖춘 제품으로 두통, 치통, 생리통, 관절염 등 일반적인 통증 억제에 쓰인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에이지투웨니스, 베트남서 ‘국제 여성의 날’ 행사 개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베트남에서 브랜드 입지 강화에 나섰다.

애경산업은 에이지투웨니스가 지난 5일 베트남 호찌민에 위치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한 ‘에이지투웨니스 여성의 날’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베트남에서 ‘국제 여성의 날’은 여성의 사회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다. 이번 행사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와 교류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간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에이지투웨니스 여성의 날’ 행사에는 브랜드 현지 모델인 응우옌 푹 투이 티엔을 비롯해 베트남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 유통 관계자 등이 150명 넘게 참석했다.

에이지투웨니스는 브랜드 모델 투이 티엔과 함께하는 토크쇼 및 기념 촬영, 디지털 마케팅 성공 사례 공유, 행운권 추첨 등을 마련했다. 또 유통 관계자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에이지투웨니스 어워드’도 진행했다.

무엇보다 에이지투웨니스는 베트남 현지 특성을 반영해 맑고 화사한 피부를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피부 진정·미백·냉각 효과를 갖춘 ‘AGE20’S 오리지널 에센스 팩트 EX’를 활용했다.

/이청하 기자

“수출물량 신속 생산으로 초격차 역량강화”

삼양식품, 밀양2공장 착공식

글로벌 메이저 식품기업으로 도약 총 1643억 투자... 총 5개 생산라인

삼양식품이 2022년 밀양1공장 완공 후 2년 만에 2공장 건설에 들어간다.

삼양식품은 6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밀양2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김경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을 비롯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허흥 밀양시의장,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부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경수 부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글로벌 메이저 식품기업으로 도약하는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밀양2공장 신설을 결정하게 됐다”며 “밀양2공장은 생산혁신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대량생산뿐만 아니라 자동화, 효율화, 지능화 관점에서 더욱 진화한 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양1공장, 2공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생산하게 된다면, 우리는 초격차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메이저식품 기업으로서 위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상



6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된 밀양2공장 착공식에서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김경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가 기념 시삽을 하고 있다. /삼양식품

축사에서 “2027년까지 농식품과 전방산업을 10대 전략 수출 사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오늘 착공하는 밀양2공장이 삼양라운드스퀘어와 K-푸드의 수출전초기지로서 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바란다. 정부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밀양2공장 건설에 총 1643억원을 투자한다. 연면적 3만4576㎡에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총 5개의 라면 생산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밀양1공장보다 진화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탭티어 수준의 완벽한 식품안전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내 완공 시 연간 최대 5억6000개의 라면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의 연간 최대 라면 생산량은 기존 18억개(원주, 익산, 밀양1

공장)에서 약 24억개로 증가하게 된다.

삼양식품은 밀양2공장은 완공 후 미주 시장을 겨냥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며, 밀양1공장은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밀양시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발판이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삼양식품은 2022년 5월 밀양1공장을 완공했다. 삼양식품은 모든 수출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인기로 힘입어 전체 매출액은 2021년 6420억원, 2022년 9090억원, 2023년 1조1929억원으로 매년 큰 폭 증가하고 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삼양식품은 2022년 식품업계 최초로 ‘4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알피바이오

박재경 신임 대표이사 내정



대웅제약과 미국 알피세라의 합작회사인 알피바이오가 ‘성과중심제’와 ‘마케팅 전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알피바이오는 핵심 매출처인 일반 의약품 부서 박재경 상무(사진)를 신임 공동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알피바이오는 지난 2023년 개별 기준 매출액 15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9.36% 상승한 역대 최대 매출 규모다. 박재경 상무는 매출 상승을 총괄하며 국내외 파트너 발굴 및 협업을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하 기자

데뷔 30주년 기념

나윤선 Elles 콘서트

DATE: 2024.04.17 (WED) 19:30

VENUE: 롯데콘서트홀

TICKET: LOTTE CONCERT HALL **yes24**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60,000원
문의 070-8671-8103



Alive! 얼라이브! 맥스 바이탈

나윤선 "Elles" 콘서트 관람 고객 모든 분들께
고급 액상 멀티비타민 얼라이브 맥스바이탈을 드립니다
[7개입 선물세트]





한국거래소, 청소년 자립지원 후원금 3억 '쾌척'

한국거래소는 6일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부산지역 아동복지 시설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KRX 드림나래' 후원금 3억원을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왼쪽부터)김희석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KRX 드림나래' 후원금 전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SKT, '2기 스포츠 꿈나무 후원식' 개최

SK텔레콤이 5일 서울 을지로 사옥 T워에서 제2기 스포츠 꿈나무 후원식을 열었다. 이번 2기 후원에서는 기존에 5종목 5명이었던 경기력 우수 선수를 8종목 10명의 선수로 후원폭을 넓혔다. (앞줄 가운데)오경식 SKT 스포츠마케팅 담당 등 후원식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T



포스코그룹, '기업시민·ESG' 교과목 확대 운영

포스코그룹이 올해에도 국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기업시민경영'과 ESG 교과목을 운영한다. 포스코그룹은 국내 9개 주요 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기업시민경영과 ESG' 교과목 프로그램을 올해 12개 대학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업시민경영과 ESG 과목은 탄소중립,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발전 등 다양한 기업경영 이슈를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하며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 기반 학습 수업이다. /포스코그룹



현대건설, 글로벌 소형모듈원전 사업 본격화

현대건설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주영한 국대사관에서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발포어 비티 및 모트 맥도널드와 각각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경쟁 공동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양국 정부인사가 참석해 원전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공동의 관심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대건설

인사

◆우석대학교 △ 입학처장 조현철 체육학과 교수

부음

▲박태성씨 별세, 박민정·노준·윤정·윤신씨 부친상, 김민구(뉴스투데이 부국장)·윤현선씨 병부상, 김현주씨 시부상 = 5일 오후 6시25분, 발인 8일 오전 6시, 장지 경남 함양 하늘공원, 서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2호실. 02)3410-3151
▲정정명씨 별세, 정진욱(매일경제신문 기자)씨 부친상 = 6일, 빈소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8일 오전 10시, 장지 수원시연화장. 031-219-4571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카이스트 특별강연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 자신… 기술인재 동참해주시길”

‘상상을 뛰어넘는 여정’ 주제 강연 “산학협력 통해 새로운 미래 준비”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기술 인재들을 만나 미래를 제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최 사장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삼성디스플레이, 상상을 뛰어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OLED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까지 과정과 미래 전략 등을 소개했다.

특히 최 사장은 학생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인재 확보 노력도 이어갔다. 강연장 밖에는 다양한 시제품을 전시하고, 256인치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로드쇼 트럭’으로 상상력도 자극했다.

최 사장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결 과제와 연구 영역이 무궁무진한 미래 기술이라 무한한 도전이 가능하다고,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경험이 산업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 사장은 ‘아임 파인 큐!’로 미래 비전을 요약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임 파인 큐!’로 미래 비전도 요약했다. 노트북과 태블릿, 전장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고성장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하고 QD-OLED 화질을 경쟁력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최 사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모토를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미

레’라고 지었는데, 그 미래가 실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학생들 가슴 속에 있는 아름답고 멋진 미래 역시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현실로 가꿔가길 기대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한편, 이날 특강에 앞서 KAIST 본관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KAIST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3기 협약식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최주선 사장, 이창희 연구소장(부사

장)을 비롯해 이광형 KAIST 총장,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KAIST 디스플레이 연구센터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디스플레이 전분야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4년 출범한 연구 기관으로, 올해로 3기를 맞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와 연구센터는 향후 5년간 미래 디스플레이 준비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최주선 사장은 “지난 10여년간 대한민국 최고 대학 중 하나인 KAIST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연구성과를 이뤄냈고 이 과정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금도 회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산학 협약을 통해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리더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대교협, 박상규 회장 취임… “등록금 인상 등 재정문제 해결 최선”

(중앙대 총장)

박 회장, 대학 자율성 실현 강조 “등록금 관련 규제 철폐돼야 마땅”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사진)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8대 회장에 취임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대교협은 7일 오후 4시부터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박상규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신임 부회장은 정성택 전남대 총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곽호상 국립금오공과대 총장이 맡는다.

박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고질적인 대학의 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정원화 R&D 예산 삭감, 무전공 제도 도입 등 연일 고등교육계가 들쭉이게 만들



고 있다”라며 “고등교육 전반이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갈림길에 선 중대한 시기 대학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신임회장은 앞으로의 임기 동안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대학들은 십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연구에 꼭 필요한 기자재 확보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던 것처럼 3년 평균 물가 상승률만큼의 등록금 인상을 단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법적 근

거 없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의 연계로 인해 등록금 인상에 차마 나서지 못하는 대학들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에서의 등록금 관련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라며 “교육부와 단단한 파트너십 구축을 기반으로 대학들의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등록금 문제 해결에 협의회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박상규 회장은 1961년 출생해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통계학 석사, 미국 버펄로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입학처장, 기획처장, 미래기획단장, 행정부총장 등의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현정 기자 ihj@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모집

현대차정몽구재단

사회문제 해결 기업가 육성 나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창의적 혁신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기업가 육성에 나선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27일 까지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12기에 참여할 ‘임팩트 스타트업’ 20개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임팩트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활동으로 창출하는 가치가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라고 재단은 소개했다.

재단은 ‘인큐베이팅 트랙’에서 10개팀, ‘엑셀러레이팅 트랙’에서

10개팀을 선발해 총 20개팀에 재정적 지원과 글로벌 진출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재단 정무성 이사장은 “매출과 성장 가능성만이 아닌 창의적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을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며 소셜 임팩트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2년간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를 통해 임팩트 스타트업 334개팀(중복 포함)을 지원했고, 6103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 내달 ‘2024 교향악축제’ 개최

KBS 교향악단 개막 공연

한화큐셀이 한 달여간 대한민국 대표 23개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해 감동을 선사한다.

한화가 후원하는 (한화와 함께하는 2024 교향악축제, The Wave)가 4월 3일 KBS교향악단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국내 음악계에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교향악축제는 매년 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관객들을 만나왔다. 36회를 맞은 올해 교향악축제는 ‘The Wave’라는부제 아래 23개의 오케스트라가 아름



다운 클래식 선율의 물결을 일으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36년의 역사에 걸맞게 역대 최대 규모의 교향악단이 참여해 풍성하고 화려한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한화와함께하는 2024교향악축제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콜센터,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겹살이 끌리는 이유



연운열의
푸드특독

음식과 관련된 기념일 중에서 3월 3일 '삼겹살 데이'란 게 있다. 삼겹살 데이는 돼지 삼겹살을 먹는 날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공식적 기념일이 아닐까 싶다.

굳이 삼겹살 데일로 정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아마 삼겹살 소비가 제일 많은 국가일 것 같다. '삼겹살 공화국'으로 불려도 될 듯하다. 국내에서는 흥어처럼 내수 공급량이 부족하여 스페인과 칠레 등 전세계 17개국으로부터 약 30%를 수입하고 있다.

삼겹살은 돼지고기 부위 중 가장 고소하지만 기름기가 많아 지방 함량이 많고 칼로리가 높다. 삼겹살의 칼로리는 100g 당 약 340kcal로 열량이 매우 높은 편이고 단백질 15.8%, 지방 26.4%로 기타 부분육보다 지방함량이 높다.

돼지고기에 함유된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 철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며 메티오닌 성분은 간장보호와 피로회복에 좋다.

삼겹살은 살코기와 비계층이 3번 겹쳐 있다고 해서 삼겹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

다. 하지만 삼겹살은 '지방-살코기-지방-살코기'로 사실은 네겹이다. 삼겹살과 오겹살은 도축한 돼지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구분된다. 돼지 털을 뽑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경기지역에서는 돼지 껍질을 벗겨 파는 반면 경남·전남·제주 등 남해안 일대에선 껍질을 벗기지 않는다. 껍질을 벗겼으면 삼겹살, 벗기지 않았으면 오겹살이 된다. 삼겹살이 실제로는 네 겹이니 껍데기를 벗기지 않으면 다섯 겹이 된다.

껍질을 벗기는 것이 '박피', 그렇지 않은 것은 '미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겹살은 '미박 삼겹살'이고 삼겹살과 오겹살 모두 같은 부위지만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오겹살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소와 돼지의 '도체수율기준'에 따르면 평균축하 체중이 116kg인 돼지의 경우 살코기는 62.47kg이며 삼겹살은 14.2kg이다.

삼겹살은 대패삼겹살, 칼집 삼겹살, 목삼겹, 녹차삼겹살, 와인삼겹살, 오겹살 등 다양한 형태의 삼겹살로 상품화 되고 있다. 중국에서 삼겹살로 만든 동파육이 유명하고 유럽에서는 베이컨, 돼지기름인 라드(lard),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식용으로는 거의 사용하

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자장면을 볶을 때 라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는 하람(haram)식품이 된다.

육류는 백색육과 적색육으로 구분하는데 돼지고기는 적색육에 해당한다. 적색육이 붉은 이유는 대부분 철분을 함유한 미오글로빈에서 비롯되는데, 미오글로빈은 적혈구세포의 헤모글로빈과 유사하게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풍부한 색소 단백질이다.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방은 사이토크롬에 의해 분해되는데, 이것은 근육섬유에 포함된 붉은 색을 띠는 단백질에 기인한다. 또한 인체가 합성할 수 없는 필수아미노산을 공급하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철분과 비타민B군이 풍부한 반면 지방함량이 높아 열량과 포화지방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에는 밝은 연분홍색으로 광택을 띠고 지방의 색상은 백색으로 조직이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다. 탄력성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용출되고, 색깔이 황색으로 변했거나 이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구입을 피해야 한다. 냉장 보관할 때에는 0~5°C에서 1~2일, 냉동 보관할 때에는 -18°C 이하에서 15일~1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

/연운열 (재)전남바이오전환원 식품산업연구소장

무인화에 고개 떨구는 디지털 소외계층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슈퍼마켓, 세탁소, 반찬가게, 문방구, 반려동물 용품 가게...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 24시간 무인 판매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만 몇군데 보였었는데 지금은 어느 업종이든 무인 판매점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다. 눈치볼 필요 없이 느긋하게 물건을 고른 뒤 직접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면 되고, 무인 가게는 보통 심야시간에도 열려 있어 기자도 종종 이용하는 편이다.

무인 점포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편의점 업계가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하이

브리드 매장(주간에는 직원이 상주하지만,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형태)·무인 매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초기 비용이 비싸더라도 감내하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셀프 결제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 무인화 바람이 불면서 향후 5년 안에 모든 업종에서 결제를 포함한 단순 직무를 하는 인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버거 프랜차이즈나 카페의 경우 이미 대부분 매장에 키오스크가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에나 단점은 존재하듯 무인화 시스템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겠지만, 고령층과 시각 장애인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

지 않은 계층에게는 달갑지 않을 터. 최근 지자체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 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모든 기기가 동일하지 않은 데다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음성지원 키오스크나 가독성을 높인 키오스크가 부족한 탓에 주문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한다.

또 점원에게 직접 주문하면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것도 키오스크로 하면 메뉴 선택부터 추가사항, 결제 수단 선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비대면·무인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게 쉽고 빠른 디지털 교육과 활동이 적절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tree6834@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7일 (음 1월 2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나라 밖에서 반기온 소식이 온다. 48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땅도 넓은 법이다. 60년생 원숭이따위의 거래에 행운이 있다. 72년생 둘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러서 가야. 84년생 구슬수가 따르니 외출 조심.



37년생 정확한 거절이 관계를 좋게 한다. 49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마음이 슬픈 하루. 61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73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조력자가 있어서 다행. 85년생 배우자의 의견을 수렴.



38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5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62년생 좋은 말로 투자 속삭이는 이를 경계. 74년생 골치 아픈 일은 상사와 상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86년생 5시 이후 운전 주의.



39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사촌을 잘 보살피라. 51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63년생 할 일은 많은데 마음만 바쁘다. 75년생 보이스피싱을 주의. 87년생 안정을 위해 육체적으로 일해볼 것.



40년생 강을 건너어도 배는 보관해 뒀어라. 52년생 동업자와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마무리된다. 64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76년생 지나간 인연은 생각을 말라. 88년생 새소리에 도 하나하나 뜻이 있다.



41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5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65년생 길 떠나는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된다. 77년생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 무슨 일든 참여하라. 89년생 혼수 문제로 근심스럽다.



42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54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외출은 자제하라. 66년생 넓게 바라보면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생긴다. 78년생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다. 90년생 인생은 그냥 걸어가면 된다.



43년생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 55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고 하면 원망을 듣게 된다. 67년생 예상외의 초대할 하루가 즐겁다. 7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이 필요하다. 91년생 항상 침묵은 금이라 했다.



44년생 문제가 생기면 자손들과 의논해서 해결. 56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68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음이다. 80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허물도 나온다. 92년생 화분 갈이를 해서 집안 분위기를 변화.



45년생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나는 날이다. 57년생 상대의 실수를 포용하라. 69년생 계획을 세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결과부터 챙기지 마라. 81년생 꾸준한 노력에서 탄생. 93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 날이다.



46년생 배우자가 내겐 좋은 협력자이다. 58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70년생 하나를 뿌려도 열 개로 돌아오니 기분이 좋은 날. 82년생 학문으로 투자하여 앞날을 개척. 94년생 부부간이라도 돈 문제의 쓰임을 구별.



47년생 아침부터 금전 문제로 갈등과 속상할 일이 생긴다. 59년생 깊이 생각하면 나 같 길이 절로 보인다. 71년생 결과가 있으니 즐겁게 행동하라. 83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으니 힘내라. 95년생 남의 돈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려 하는가.



김상회의四季 꿈과 현실

팔자에 식상食傷이 혼잡하면 보통은 한 우물을 파기가 어려운데 결국 나이가 든 이후에 젊을 때의 꿈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번 상담을 청했던 은행원도 그런 경우였다. 그는 학교 다닐 때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취업한 곳은 반듯한 은행이었다. 당장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취업해야 했다. 외환과 환율 담당자로 이십 년 넘게 일하던 그는 다시 작가의 꿈을 꾸다가 상담을 청했다. 회사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습작도 했던 그는 자기가 작가의 재질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사주를 짚어보니 문창성이 들어있었다. 문창성 사주는 무언가를 배우는데 흥미가 있고 습득 속도가 빠르다. 공부나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계로 진출하거나 작가가 되는 사람 중에 문창성 사주가 많은 편이다. 상담을 청한 은행원이 소설가에 끌리는 것은 자기의 바탕에 자리한 재질 때문이라고 할 만했다. 그런데 재능은 있지만 그의 문창성은 아주 늦게 꽃피는 운세였다. 현재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도 드라질 뿐이었다. 필자는 그에게 겸업 작가를 제안했다.

가족부양의 현실 앞에서는 글쓰기도 막힘이 따르기 마련이다. 보장된 길을 두고 아직 멀리 남아있는 어려운 길을 찾아가기보다 겸업 작가로 입지를 조금씩 더 만들어 놓고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업으로 삼는 것도 방법이 될 터였다. 은퇴 나이쯤 되면 아이들 교육이 끝나니 부양 부담도 줄어든다.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면 글이 더 잘 써질 수도 있다. 평생의 꿈에 다시 도전하는 건 용기 있는 일이지만 사주에 타고난 운세가 있기에 필자는 용기를 주었다. 도드라진 능력 뒤에 펼쳐지는 문창성의 꽃길 예측이 기다리고 있으니 자신의 운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로 크리에이티브의 열정과 열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 | | | | | |
|---|---|---|---|---|---|
| 5 | | | 3 | 7 | 6 |
| | | 1 | | 3 | |
| 8 | 3 | | 4 | 5 | |
| | 3 | | | | 7 |
| 7 | 8 | | 2 | 5 | 3 |
| | 5 | | | 6 | |
| | | 4 | 1 | | 3 |
| | 4 | | 2 | | |
| 3 | 2 | 6 | | | 5 |

| | | | | | |
|---|---|---|---|---|---|
| 1 | | | 9 | 4 | 8 |
| 7 | | | 8 | 9 | 5 |
| | | 4 | | | 7 |
| 3 | 1 | 5 | | | 4 |
| 9 | | | | | 8 |
| 4 | | 1 | 5 | 7 | |
| 1 | | | 5 | | |
| 4 | 3 | 9 | | | 5 |
| 9 | 2 | 1 | | | 6 |

| | | | | | | | | |
|---|---|---|---|---|---|---|---|---|
| 9 | 1 | 7 | 8 | 9 | 6 | 2 | 2 | 8 |
| 2 | 9 | 6 | 2 | 9 | 8 | 7 | 8 | 1 |
| 8 | 8 | 2 | 2 | 1 | 7 | 9 | 6 | 9 |
| 1 | 7 | 9 | 8 | 2 | 8 | 6 | 9 | 2 |
| 8 | 6 | 9 | 7 | 2 | 9 | 8 | 1 | 2 |
| 2 | 2 | 8 | 1 | 6 | 9 | 8 | 9 | 7 |
| 6 | 2 | 1 | 9 | 7 | 2 | 9 | 8 | 8 |
| 7 | 9 | 8 | 9 | 8 | 1 | 2 | 8 | 6 |
| 9 | 8 | 2 | 6 | 8 | 2 | 1 | 7 | 9 |

| | | | | | | | | |
|---|---|---|---|---|---|---|---|---|
| 9 | 7 | 8 | 2 | 8 | 1 | 2 | 9 | 6 |
| 9 | 1 | 2 | 9 | 6 | 2 | 8 | 7 | 8 |
| 6 | 2 | 8 | 9 | 7 | 8 | 2 | 1 | 9 |
| 2 | 6 | 9 | 2 | 1 | 8 | 8 | 9 | 7 |
| 8 | 8 | 1 | 7 | 9 | 2 | 9 | 6 | 2 |
| 7 | 9 | 2 | 8 | 9 | 6 | 1 | 2 | 8 |
| 1 | 2 | 9 | 8 | 2 | 7 | 6 | 8 | 9 |
| 2 | 9 | 6 | 1 | 8 | 9 | 7 | 8 | 2 |
| 8 | 8 | 7 | 6 | 2 | 9 | 9 | 2 | 1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206 | 2002년5월28일 제5386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490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휘어지고 빠르고 가볍게... 급속충전·배터리 신기술 '총출동'

Q 르포 EV 트렌드 코리아·인터배터리

국내 전기차와 충전기술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핵심인 배터리까지 최신 제품과 서비스가 한 자리에 모였다.

전기차 산업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4'와 2차 전기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가 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두 박람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초점을 맞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올해 12번째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18개국 579개 배터리 업체가 참가해 1896개의 부스를 꾸렸으며 올해로 7회차를 맞은 EV 트렌드 코리아는 86개사 445부스 규모로 참석했다.

◆EV 트렌드 코리아 '전기차 충전용품·솔루션' 눈길
우선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최된 EV 트렌드 코리아 전시장은 전기차 충전용품 및 솔루션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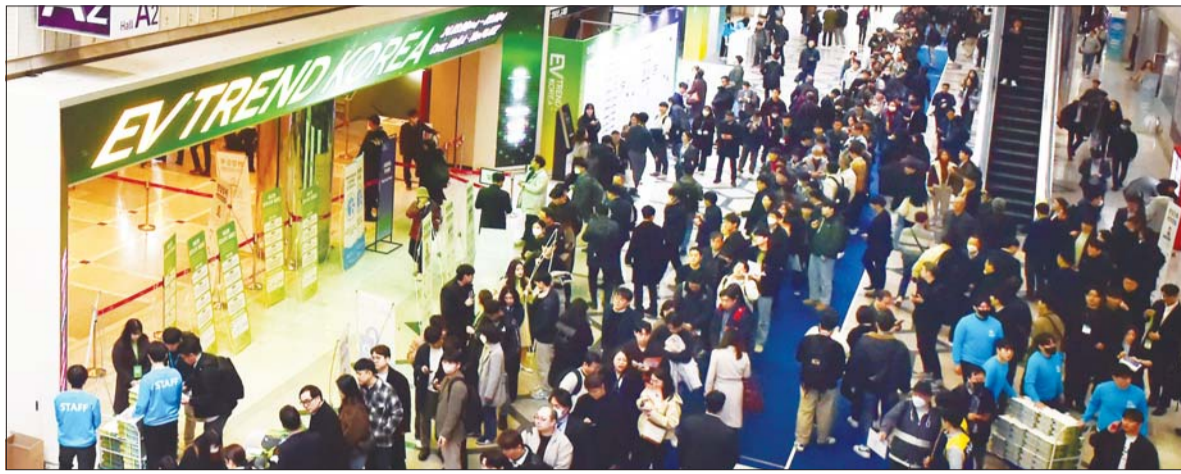
현대차는 전기차의 경제성과 배터리 성능을 설명하기 위한 전시장을 마련했다. 구매부터 중고차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생애 주기에 맞춘 현대차만의 서비스를 로드맵으로 구현하고, 유지 비용 비교 체험으로 전기차의 경제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토록 했다. V2L(Vehicle to Load) 기능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전기차에 저장한 전력을 이용해 가전 제품을 사용할 경우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전시장에는 현대차가 최근 선보인 아이오닉 5 상품성 개선 모델과 다 올 뉴 일렉트릭 N라인이 방문객을 맞이했다.

EV 트렌드 코리아, 전기차 충전용품 눈길 전기차 생애 주기 맞춤형 서비스 로드맵 구현 충전·공간 등 지속가능성 3개 전시공간 마련

기아는 전기차 충전과 공간 및 신기술, 지속가능성을 각각 주제로 하는 3개의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레이 EV, EV9, EV9 GT-라인 등 최신 전기차를 통해 충전부터 친환경 소재 활용, OTA(무선 업데이트) 등 전기차 관련 최신기술을 관람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부스를 꾸렸다. 이날 방문객들은 현대차와 기아 전시장을 찾아 전기차의 디자인 등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날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충전기, 충전 인프라 등을 볼 수 있었다. 그중 모던텍이 선보인 무인로봇충전시스템 '모던보이'는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전기차를 주차하면 로봇이 스스로 전기차 충전구에 충전기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날 시현



최신 전기차 트렌드를 볼 수 있는 'EV TREND KOREA 2024'가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람객들이 각 기업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4' 기아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에서 로봇은 관제 시스템 제어에 따라 충전기로 이동해 충전 케이블을 집게발로 뺀 후 전기차의 충전구에 정확히 연결했다. 이후 반대로 맞물려있는 충전 케이블을 충전구에서 빼서 다시 충전기에 꽂는 작업도 이뤄졌다. 해당 과정은 각각 1분씩, 총 2분가량이 소요됐다. 모던텍은 앱을 이용해 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아이오닉 5와 EV6만 충전이 가능한 상태다. 신방화역과 모던텍 본사에 1기씩 설치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부스에서는 전기차 충전시 충전기가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해 운전자가 추가 입력을 하지 않고도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파킹' 서비스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운전자가 충전기에 ID를 입력하거나 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충전이 가능하다. 또 충전기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EVD100DK' 제품도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다. 이 제품은 설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 1대에서 2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 파킹은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며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 LG에너지솔루션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셀투팩(Cell To Pack) 컨셉의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 플랫폼을 관람하고 있다. /뉴스시

◆'K-배터리' 총출동... '인터배터리 2024' 관심 폭발

이날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곳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K배터리를 대표하는 업체들의 부스였다.

삼성SDI는 차량 내부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동차 모형을 전시했다. 또한 21700 원형배터리, P5각형배터리 등 삼성SDI의 주요 제품들도 소개됐다. 특히 제품을 소개하는 코너 뒤편에는 화려한 영상미를 담은 기업 소개 영상이 재생되고 있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부스 한 편에는 볼보 전기상용차도 전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트럭용 배터리 팩을 소개하며 관련 기술을 설명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원형 배터리는 크기가 작아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배터리팩의 모양을 디자인하는데 좀 더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인터배터리, 배터리 3사 미래전략 공유 배터리 탑재한 차량 미니어처 모형 전시 철강 복합소재 적용된 배터리팩 선보여

LG에너지솔루션은 블루투스 이어폰, 노트북 등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의 배터리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V R 고글에 사용되는 곡선형 파우치 배터리의 흰 모양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SK온의 부스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2024 인터배터리 어워즈'에서 '급속충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어드밴스드 SF(Super Fast) 배터리다. 해당 배터리는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밀도는 9% 높이면서 급속 충전 시간을 유지한 제품이다. 1회 충전 시 최대 501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기아 EV9에 탑재됐다.

특히 '2024 인터배터리' 개막식을 앞두고 배터리 3사의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돋우었다. 각 사의 대표는 기자들과 회사의 미래 방향과 전략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SDI는 투자 규모를 늘리며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는 "울산 양극재 공장을 착공 시작했고 앞으로 다른 공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급속충전 관련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더블레이어 코팅 기술을 활용해서 급속충전을 강화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K온은 LFP 배터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석희 SK온 대표는 "내부적으로는 LFP 배터리 개발이 완료됐고, 고객과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되면 2026년쯤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성운·차현정 기자 ysw@metroseoul.co.kr

뉴스시시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몬테네그로 법원, '루나코인' 권도형
美 인도 무효 /사진 뉴스시
▲중국, 국방비 지출 300조 돌파... '평
화' 언급도 줄어

▲트럼프, 선거자금 고갈에 머스크 만남
요청
▲테슬라, 잇단 악재에 이틀 사이 시가
총액 100조원 증발



▲트럼프 '슈퍼 화요일' 압승에... 바이
든 "혼란 반복" /사진 뉴스시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불발 위기...
이스라엘 총리 회담 불참



데상트골프
DISC 쇼케이스
“한국인 축형 최적화”
니



Life

금연시도올 상승
“습관적 행동 줄여야
실패율 낮출 수 있어”
L2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방안 찾는다 “전략적 개발 등 도시 대개조 뒷받침”

이달 중 ‘관리·활용’ 영역 추진 지역여건 등 현실 반영 변화상 제시 “경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 구상”

서울시가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제도와 지정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영역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해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화를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있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다. 전체 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주택공급 부족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돼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지역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다”며 “이번 영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변화된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본 영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곳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시는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반시설 용량과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미래 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고양시, 4조 규모 전기차설비 투자 유치

중 국영기업 북경자동차 업무협약

고양시가 6일 중국 국영 자동차 기업인 북경자동차(BAIC MOTOR)와 지정신청을 앞둔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4조원 대규모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경자동차는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약 200만㎡(60만평) 규모로, 약 4조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생산 및 판매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생산목표량은 연간 20만대 이상이며 생산량의 90% 가량을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R&D연구원 운영, 인재양성 직업 교육 및 취업 연계, 재직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등에 관해서도 고양시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북경자동차는 1958년에 설립된 중국 국영 자동차 제조판매기업으로 2023년 세계 전기차 생산 12위, 중국 내 6위를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오른쪽)이 6일 중국 국영 자동차 기업인 북경자동차(BAIC MOTOR)와 지정신청을 앞둔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4조원 대규모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

기록한 기업이다. 전 세계 48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상위 500대 기업 중 190위권 기업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최첨단 산업육성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자족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부업·공구 등 SNS 입금유도 주의하세요”

서울시 부업사기피해 4.4억 달해

문자메시지나 SNS로 온라인 쇼핑물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물 부업사기 피해 상담 총 5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금액이 4억3900만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피해 접수액 1940만원보다 23배 증가한 수치다. 작년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원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해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푼돈이라도 벌여보려

는 주부와 사회 초년생들이 부업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카페, 문자, SNS 등을 통해 ‘채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만~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자사 쇼핑물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을 환불해주고 수수료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연락을 끊었다. 도매가에 공동구매 상품을 대신 사게 한 뒤 결제액과 수수료를 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의회 “관광도시 걸맞는 인프라 마련해야”

맞춤형 숙박시설 확보 주문 비합리적 행정 개선 지시

서울시의회가 관광특구 안전계획과 의료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숙박시설 마련 등으로 고품격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 총 35건을 접수해 17건에 대한 조

치를 마쳤다. 나머지 17건은 추진하고 있으며, 1건은 검토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시의회는 의료관광에서 핵심이 되는 환자 맞춤형 숙박 시설을 확보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이에 시는 의료관광 증장기 계획(2025~2029년)을 세울 때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련 영역 과업에 의료관광객이 선호하는 숙박시설 형태 등을 실태조사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우수관광상품 지원 관련 비합리적인 행정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시의회는 “고품질 관광 콘텐츠 상품화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연말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평가 순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보인다”며 “서울 관광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고품격 관광 콘텐츠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선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주요상권 점포, 월평균 임대료 450만원 지출

18평 기준… 북창동 1087만원 ‘1위’

지난해 북창동·명동·압구정로데오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약 7만5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

만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시가 지난해 8~11월 벌인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서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7만4900원으로 파악됐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

료는 450만원이었다. 보증금은 1㎡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으로 환산하면 5755만원이었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북창동이 1㎡당 월 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전용면적(60.2㎡, 18.2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원이 임대료로 지급됐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5 | 해질 / 18:32

3월 7일 (목)
음력 : 1월 27일

수도권 날씨
2 ~ 8 °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인천 -2/7, 동두천 0/8, 가평 -1/8, 파주 -2/8, 서울 2/8, 양평 1/8, 수원 2/7, 평택 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토트넘, 손흥민 재계약 적극 추진…
“떠날 이유 없다”
/사진 뉴시스
▲ FC서울, 개막전 관객 4만명 기대…
“역대 최다일 것”

▲ ‘후배 괴롭힘’ 오지영, 재심 신청 없이 법적 절차 밟을 듯
▲ 스톡 슈마허 감독 “배준호, 말은 못 알아 들어도 잠재력은 최고”



▲ 이강인, 교체 투입 후 도움 기록…PS G 2:1로 8강행
▲ 류현진, “아직 100%는 아니지만, 개막전 문제 없을 것”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SAMSUNG



세계 최고 흡입력 최대 310W으로 초강력 청소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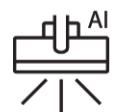
2024 BESPOKE 제트^{AI} 출시



특허 출원기술로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최대 310W 흡입력



약55°C 이상 가열된 고온수 직접 분사
고온 세척 브러시



실내 환경 감지 최적의 흡입력 구현
AI 모드 2.0



감진 머리카락까지 말끔하게
청정스테이션+



[특허 출원기술 번호] *제트 사이클론 특허 등록 제10-2080013호 *모터 특허 등록 제10-2061517호 : 임펠러(Impeller) 특허 *모터 특허 출원 5건 1) 로터(rotor) 특허 P20190153539 2) 스테이터(stator) 특허 P2020093357 3) 스테이터(stator) 특허 P20210160094 4) 모터 구조 특허 P20210191532 5) 임펠러(Impeller) 특허 JP2021-177920 *고온 세척 브러시 액세서리 구성은 모델에 따라 상이함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임 *흡입력 수치는 국제표준(IEC 62885-4, CL 5.8항)에 따라 핸드형(브러시/연장관/액세서리 미적용)/제트 모드 기준, 먼지통이 빈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한 새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여 측정된 국제 공인시험 기관 독일 SLG에서 진행한 테스트 결과, 실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측정용 진공 챔버로 청소기 유량과 진공도 변화량을 측정하여 최대 흡입력을 계산 2) 청소기 최대 흡입력: 유량(L/s)과 진공도(kPa)의 곱으로 계산(max. airwatt, [W])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 당사 제품 흡입력의 15% 이내의 흡입력을 제공하는 우선 청소기 제품을 국제 공인시험 기관 독일 SLG에서 테스트한 흡입력 실측치와 비교됨 (독립 시장 조사 기관의 2023.1~2023.12 사이 판매 데이터 기준)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 참고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가전을 나답게.